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Max Thunder 연합훈련에 참가한 동북아 최강 F-15K와 한·미 공군 조종사



photo 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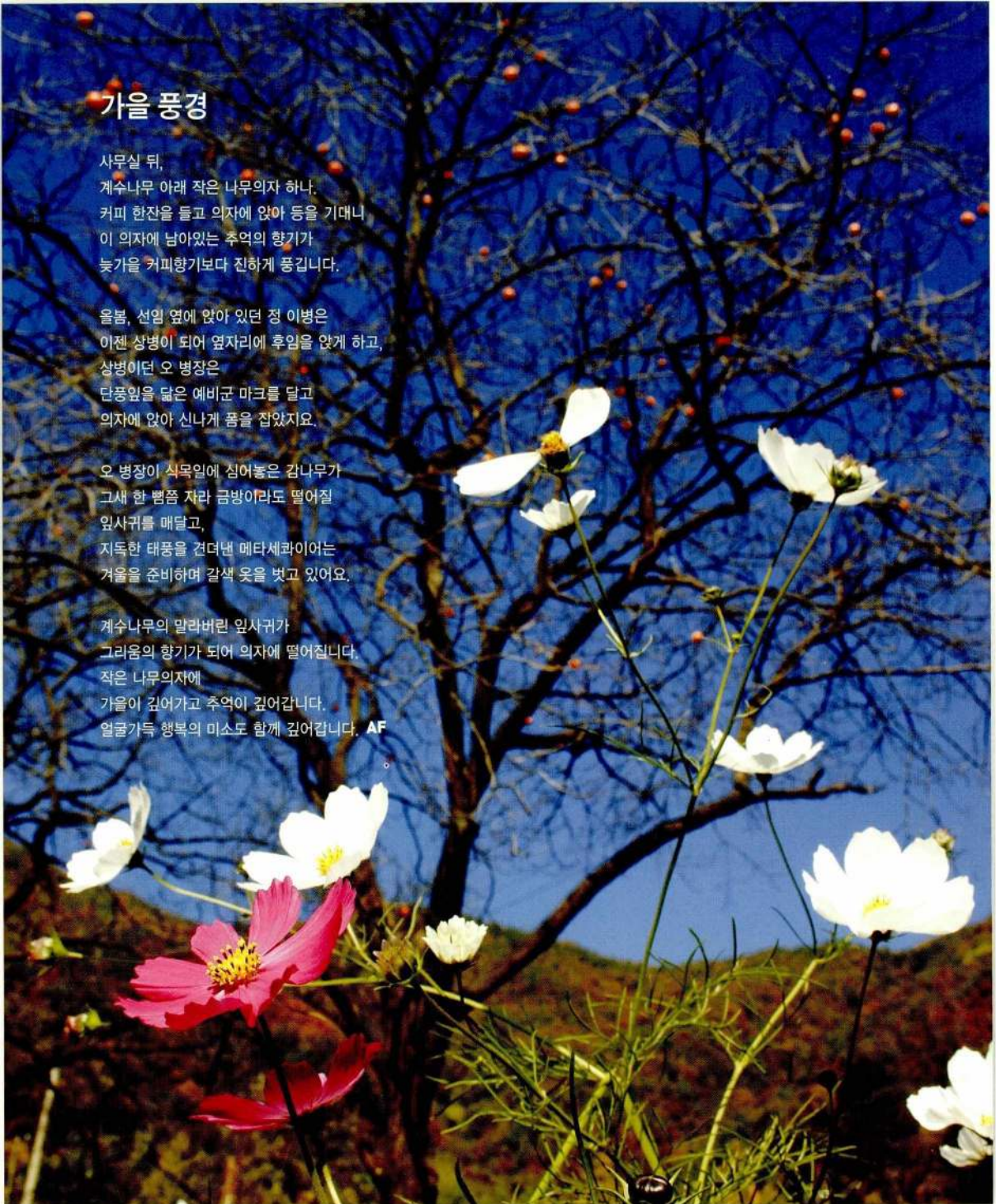
가을 풍경

사무실 뒤,
계수나무 아래 작은 나무의자 하나.
커피 한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니
이 의자에 남아있는 추억의 향기가
늦가을 커피향기보다 진하게 풍깁니다.

올봄, 선임 옆에 앉아 있던 정 이병은
이젠 상병이 되어 옆자리에 후임을 앉게 하고,
상병이던 오 병장은
단풍잎을 닮은 예비군 마크를 달고
의자에 앉아 신나게 품을 잡았지요.

오 병장이 식목일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그새 한 뼘쯤 자라 금방이라도 떨어질
임사귀를 매달고,
지독한 태풍을 견뎌낸 메타세콰이어는
겨울을 준비하며 갈색 옷을 벗고 있어요.

계수나무의 말라버린 임사귀가
그리움의 향기가 되어 의자에 떨어집니다.
작은 나무의자에
가을이 깊어가고 추억이 깊어갑니다.
얼굴가득 행복의 미소도 함께 깊어갑니다. **AF**





- 06 명사로부터 듣는다 한국 우주개발의 정책방향
- 08 Global AF 내실 있는 전력증강의 교과서, 이스라엘 공군
- 12 Leadership+ 결정적 순간의 대화
- 14 Learning Large Lessons 이라크(2003) 전쟁에서 드러난 항공력
- 30 World-Wide Vision 2010 Angel Thunder



- 16 Ready to Fight Tonight! 2010 유도탄 사격대회 개최
- 18 기획특집 한·미 공군, 한반도 상공에서 실전방불 공중대전!
- 24 참모총장 스케치
- 26 Air Force Monthly
- 34 6·25전쟁 60주년 행사 현장 공군작전재연 및 해외 공군 참전용사 초청 행사
- 38 6·25전쟁 공군 영웅기 8 결사의 정찰비행, 박문기 소위
- 40 6·25전쟁 60주년 기획연재 6·25전쟁에 새겨진 한국공군의 활약
- 44 공군사 바로보기 항공 독립운동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2)
- 52 생각하는 그림 따뜻한 말 한마디의 가치

COVER STORY



Max Thunder 훈련에 참가한 한·미 조종사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각각 들고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 F-15K 쌍발엔진 위에 올라섰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 확립 및 연합 전투능력 신장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마무리되었다.

사진촬영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CULTURE 36.5

46



- 11 Preview 11월의 문화행사
- 23 책마을 홀로 사는 즐거움
- 46 Hollywood English 메가마인드
- 48 Behind the Canvas 빛의 화가 렘브란트
- 50 지구촌 음악산책 노르웨이의 숲을 찾아서

OPINION

54



- 02 포토로그 가을 풍경
- 54 창공 글터 이제는 사랑을 알 것 같다
- 56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9월호를 읽고서
- 57 독자엽서
- 59 퀴즈

MONTHLY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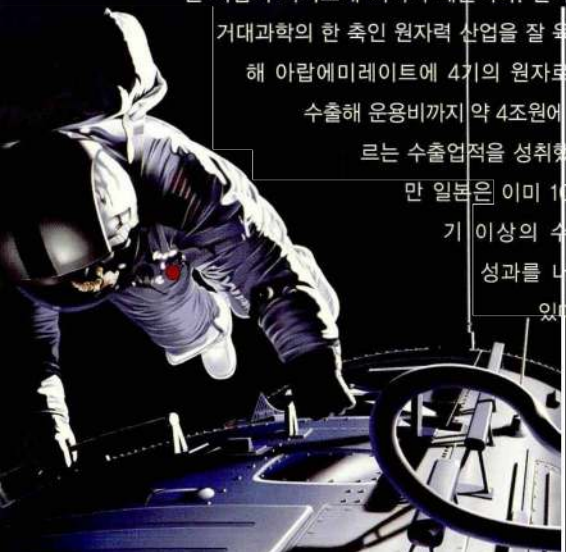
VOL. 389. 2010. 11

발행일자 2010년 11월 5일(통권 제389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한국 우주개발의 정책방향

2007년 1월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던 날 필자는 동경 이찌가야 방위청 내 뜰에 서 있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특파원들 틈에 끼여 방위청 간판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했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예산의 기획과 집행권이 확대되어 군비확충이 유리해지고 문자 그대로 군사강국이 되는 지름길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열병을 마치고 관계자와 초청인사 모두 강당으로 옮겨 가는 데 그 날 축하 강연자로 지명된 전(前)총리이자 방위청 장관을 지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씨가 차에서 내려 노구를 이끌고 강연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청년장교라 불리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는 군사강국 일본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보다 더 위대한 그의 업적은 거대과학 즉 원자력(항공우주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기에 “한국에도 저런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하는 소회가 깊었다. 1960년대에 원자력과 우주분야에 국가예산을 배정해 줌으로써 오늘날 일본이 원자력 대국, 우주강국이 되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 나카소네 씨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거대과학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을 잘 육성해 아랍에미레이트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해 운용비까지 약 4조원에 이르는 수출업적을 성취했지만 일본은 이미 10여 기 이상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하나 거대과학의 한 축인 항공우주도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일본은 세계 정상 수준이다. 우주분야에서도 미·일 우주협력 분야를 개척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에 대한 물꼬를 튼 인물도 나카소네 씨다. 일본은 이토가와 박사라는 천재가 있어 펜슬로켓이라는 조그만 고체연료 로켓으로 우주개발의 불씨를 지폈지만 미국의 델타 로켓을 카피한 N-1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까지 4번 연속 실패를 경험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나라다. 실패를 거듭하는 우주분야에 인내심을 갖고 투자해 왔기에 일본은 이제 한국의 인공위성을 그들의 땅 다네가시마 우주 발사장에서 발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H2-B 로켓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HTV라는 화물수송기를 통해 필요한 물자를 수송할 수 있을 만큼 일본의 우주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현재 미국은 스페이스 셔틀 운용을 중지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 수송은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유인우주선이 아닌 무인수송기로 물자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일본이어서 세계는 일본의 우주협력이 절실한 상태다. 일본 기술자 스스로가 말하기를 “도킹 실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미사일 요격 기술도 완벽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자 미국과 함께 미사일 공동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 도킹 실력으로 미사일 요격 실력의 우수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일본은 이제 머지않아 유인우주선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자 일본에는 우주개발이 중국에 뒤진 것은 아닌가라는 실망 분위기가 있었지만 로켓의 성능이라든가 위성기술 등은 일본이 훨씬 뛰어나 유인우주선 실현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뿐이었는데 그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이 일본에 앞서 유인우주선을 먼저 보내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우주개발에 군사적 목적이 우선되었기에 대기권 바깥에 로켓,





즉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가 다시 대기권 내로 들어오는, 즉 대륙간탄도탄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기에 우주인을 실어 대기권 바깥으로 보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기술이 앞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주개발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이라는 국가정책을 일본 총의원이 선언하면서 우주개발을 진행해 왔기에 우주 바깥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가 지구로 회수시키는 기술에 집중하지 않았다. 물론 오레스나 하이프렉스기 실험 등을 통해 대기권 바깥에 보냈다가 지구로 회수시키는 실험은 종료한 상태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탄 개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국은 고흥반도에 나로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우주개발의 길을 열고 있는데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1)를 러시아와 협력하며 발사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우주개발에는 지름길은 없다는 진리를 실감한다. 4회나 연속 실패하며 우주강국이 된 일본, 로켓 발사를 하다 인근 마을을 덮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던 중국도 실패를 거듭하며 세계의 우주강국이 되었다.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1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해 주었고 무엇보다 크나큰 성과는 세계 일류급의 우주발사장을 마련했다는 일이다. 나로호 로켓 구조물 중에 120킬로그램급 과학위성과 제2단 고체추진모터는 한국의 작품이지만 제1단 로켓은 러시아가 만든 액체연료 로켓 엔진이다. 한국은 추진력이 높은 제1단 로켓 엔진을 만들 능력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국력을 집중시켜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자주 개발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타의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협력을 꺼리기 때문이다. 우주능력은 양면성을 띠고 있어 대륙간탄도탄 등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주선진국들 중 후발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해서 미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물음을 묻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의 국제상황은 우주기술 이전이 그리 팍팍하지 않았

고 소련은 중국을 국제정치적 파트너로, 미국은 일본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은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우주개발도 박차를 가하게 되자 일본도 우주개발을 서두르게 되는데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게 되는 국제정치적 이유는 일본의 우주개발에 협력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와주는 편이 일본의 우주기술이 군사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N-1 로켓부터 로켓 제조기술을 본격적으로 전수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 로켓 개발의 산 증인인 고다이 토미후미 씨는 N-2 로켓의 경우 자체 개발비보다 약 3배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고 회고한다. 일본이 F-15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 생산할 때 전투기 값의 2.5배나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며 배웠기에 전투기 제조기술을 완성했다. 우주개발에는 비용이 든다. 이 철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돈을 주고라도 잘 안 되는 기술을 제공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2020년경 한국형 우주발사체 2를 자주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엔진시험 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75톤의 추력을 갖는 액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해서 이 엔진을 4개로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게 되면 약 1.5톤의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진정한 우주개발 자립국이 될 수 있다. 우주개발의 자주국가가 되는 길은 멀다. 성공과 좌절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형 우주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AF**

작은 고추가 맵다! 내실 있는 전력증강의 교과서, 이스라엘 공군



흔히 전사(戰史), 특히 현대전에서 '작은 고추가 맵은 사례'를 꼽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포위된 형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코 밀리거나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은 병력을 가지고 공세에 나서는 등 그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4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해 화려하게 부각된 것은 메르카바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 기갑부대이지만, 각각의 전쟁에서 적의 예봉을 꺾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1등 공신은 바로 공군력이었다. 한중도 안 되는 구식 전투기로 출발한 이스라엘 공군은 4차례의 전쟁 기간 중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해 약 460여대의 전술기¹⁾를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규모면에서 우리 공군과 비슷하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신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15I 25대와 F-16I 102대를 주축으로 F-15A~D 전투기 약 62대와 207대의 F-16A~D 등 400여대의 전투기 전력 대부분은 도입 이후 독자적인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도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조기경보기/전자전기 11대와 9대의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기 전력도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15이나 F-16은 전자장비나 무장 등을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에서 대폭 개량하고, 무장을 자국산으로 교체하여 미 공군의 F-15E나 F-16C/D 보다 더욱 강화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최신형 F-35A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75대 추가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그 전력은 한층 배가될 전망이다.

불운한 환경이 만들어낸 '합리적' 공군력

이처럼 막강한 이스라엘 공군이지만, 시작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미국과 영국은 정작 독립전쟁 당시에는 별다른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군 역시 체코제 S-199 전투기 23대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야 겨우 수령해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이후에도 중동과 소련,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기 도입은 항상 난항을 거듭했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기 개량과 독자 개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6일 전쟁 직전 프랑스가 이스라엘이 발주하고 대금까지 지불한 50여대의 미라지III 전투기를 시리아에 넘겨버리자²⁾, 이에 격분한 이스라엘은 미라지 전

1) 460여대의 현역 기체 외에 현대화 개수를 받은 F-4E, Kfir 전투기 및 A-4 공격기 등 약 200여대를 예비로 보관중이다.
2) 1950년 5월, 미국·소련·프랑스 3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듬해 소련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프랑스는 '55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개했으나, '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자 돌연 태도를 돌변, 이스라엘이 이미 발주하고 대금까지 지불한 무기를 적성국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제공해 버린다.

01. 이스라엘 공군의 최신형 F-16i Sufa 전투기. 우리 공군의 KF-16 Block 52와 동일한 기체이지만,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작전 요구 성능과 자국산 전자장비가 결합되어 Block 60에 근접한 전혀 다른 기체로 변모했다. 02. 이스라엘 공군에서 예비로 보관중인 MIRAGE III 전투기. 프랑스의 일방적인 배신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독자적인 전투기 개량과 개발에 뛰어들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03. 이스라엘이 미국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해 낸 Lavi 전투기. 전반적인 성능은 F-16C/D를 상회하며, 개발 계획 자체는 사장되었으나 중국의 J-10의 기술적 모태가 되었다.



02



03

투기 면허생산을 준비 중이던 스위스로부터 도면을 빼돌려 Nesher 전투기를 개발했고, 이를 더욱 개량해 Kfir 전투기를 개발/배치했다.

70년대 들어 미국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투기 공급처를 찾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전투기 도입률은 해소되었으나,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Lavi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전투기 시장의 잠식을 우려한 미국의 개발지원 중단과 정치적 압력으로 사장되기는 했지만, Lavi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력은 기존에 보유한 F-4, F-15, F-16 등을 자국의 특수한 작전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술적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군의 특수한 작전 환경이란 좁은 국토와 적성국의 광대한 영토를 말하는데, 협소한 국토로 인해 적의 공중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크램블(Scramble)³⁾ 기체와 함께 인접한 적성국의 넓은 영토를 가로질러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중심 타격능력을 갖춘 대형 전폭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절실했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아랍권의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스라엘은 적기에 신형 전투기나 항공무장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를 자국 환경에 맞춰 최대한 개량하고, 항공무장을 독자 개발하는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은 Kfir 계열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제이지만, 미국 사양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을 만큼 철저한 '이스라엘화' 작업을 거친다.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를 비롯해 자국산 무장 통합, 필요할 경우 오리지널에 없는 공중급유 및 전자전 키트까지 결합시켜 운용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실전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량을 실시, 모든 기체의 가동률을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눈을 돌렸던 개량 사업이 계기가 되어 이제는 개량은 물론 전투기 개발 능력까지 보유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어떻게 끌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대 공군의 전투기 부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처럼, 작금의 공군이 처한 심각한 위기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전투기 획득 사업의 연기와 축소의 반복이 불러온 인재(人災)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전투기 획득 예산 삭감을 사실상 방관해 온 국방위원들이 예산 확보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공군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과 향후 전투기 도입 스케줄에 산적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다.

3) Scramble : 비상에서 대기 중인 요격 전투기가 긴급 발진명령에 의해 최단시간 내에 이륙하여 요격 임무에 투입되는 작전형태. 통상 명령 접수부터 엔진 스타트, 이륙까지의 동적이 5분 안팎에 이루어진다.



04. 이스라엘이 기술 이전한 터키 공군의 F-4E 2020 Terminator 전투기. 터키는 이 개량을 통해 수명 연장 외에도 전반적인 총심 타격 능력과 공중 전 능력을 종래의 F-4E의 몇 배로 향상시켰다.

최근 신형 전투기들의 프로그램 코스트⁴⁾가 1억 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전력을 전투기 구매로 해결하는 것은 가용 예산이 따라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기 전투기로 공군이 사실상 낙점한 F-35A는 사업 시기 자체가 타국의 선발주 물량 인도 스케줄⁵⁾이 잡혀 있어 대량 도입은 고사하고 계획에 잡혀 있는 60대의 적기 인도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형 전투기(KFX)에서 해법을 찾자니 개발 완료 일정 자체가 2020년 이후이고, 부족한 100여 대 양산에는 약 10여 년이 소요되는데다가 이때가 되면 F-16/KF-16 초기 생산분의 기령이 30년을 넘어 도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력공백 현상이 203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책은 기존 보유 전력에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개량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고, 이 점이 이스라엘과의 방산협력 증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레이더와 비행제어, 무장 통합 등의 민감한 분야는 기술이전을 꺼리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자국이 운용하지 않는 전투기의 개량 키트까지 선보이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나라이고, F/A-50에 탑재할 레이더 개발을 위해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한국형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

술을 받아들여 기존 F-4/5/16 계열 기체의 기골 보강과 성능개량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업이다.

낮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개량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목해야 할 사례가 F-4E의 성능향상형 Kurnass(Heavy Hammer) 2000이다. 이 개량을 통해 F-4E는 기골 보강과 함께 레이더 교체, 미션 컴퓨터와 조종석 현대화 등의 작업을 통해 F-15E에 필적하는 지상 탐지/수색 능력과 최신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부여받은 강력한 기체로 변모했다. 이스라엘에서는 F-15가 도입된 현재는 예비기로 돌려졌지만, 2003년 터키 공군이 이 개량을 적용하여 자국이 보유한 F-4E를 개량해 향후 20년간 운용 능력을 획득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F-4 외에도 F-5를 위한 개량 키트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물론 '곧 퇴역할 전투기에 대당 100억 원씩 들여 개량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만만찮다. 그러나 당장 10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고, 예산은 없는데 향후 20년간 이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는 상태라면 선택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공군도 전투기 개량에 대해 조금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F**

4) Program Cost : 전투기 자체의 가격과 예비 부품, 무장, 조종사 및 정비(무장)사 교육과 관련 매뉴얼,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제반 지원시설을 포함한 가격.

5) 미 공군 수요 1,760(최대 2,400여 대)여 대를 비롯해 계약이 확정된 이스라엘(20+75대), 캐나다(65대) 외에도 영국(138), 이탈리아(131), 호주(100), 터키(100) 등 인도 우선권을 가진 JSF 프로그램 참여국들의 물량 인도 스케줄이 잡혀있는 시기로, 월 30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가진 록히드마틴의 설비로는 한국의 FX-3 사업 일정에 맞춰 물량 공급이 어려움.



전 세계 우울함을 한번에 날려버리자 뮤지컬 <스팸어랏>

뮤지컬 <스팸어랏>은 '스팸'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원탁의 기사들이 머무는 '캐멀릿'을 합친 단어. 이 작품은 2005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토니상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최우수 뮤지컬상, 최우수 연출상 등을 석권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를 패러디한 극에 풍자를 곁들이고, 여러 작품을 패러디해 관객을 포복절도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뮤지컬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까지 마냥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 공연의 유일한 여자 배역인 호수의 여인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나 <캣츠>에 버금가는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시종 일관 관객을 사로잡는다.

한국무대에서는 탤런트 박영규의 유쾌한 연기를 만날 수 있다. 아들을 잃고 잠시 휴식을 가진 그였지만, '미달이 아빠'답게 다시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을 가지고 복귀했다.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 <코러스> <지킬박사와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등 각종 뮤지컬의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도 폭소를 자아낸다. 세계적인 대작들의 주인공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한다. 중간 중간 박영수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조금은 동화틱한 무대와 의상 역시 수억 원을 들여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가을, 만약 조금은 우울하거나 일상을 탈출하고 싶다면 기분전환에 성공할 몇 안 되는 뮤지컬이다.

기간 : 2011년 1월 2일까지 ● 장소 : 서울 한천아트센터 ● 가격 : R 10만 / S 8만 / A 5만원
● 홈페이지 : <http://cyber.kepco.co.kr/art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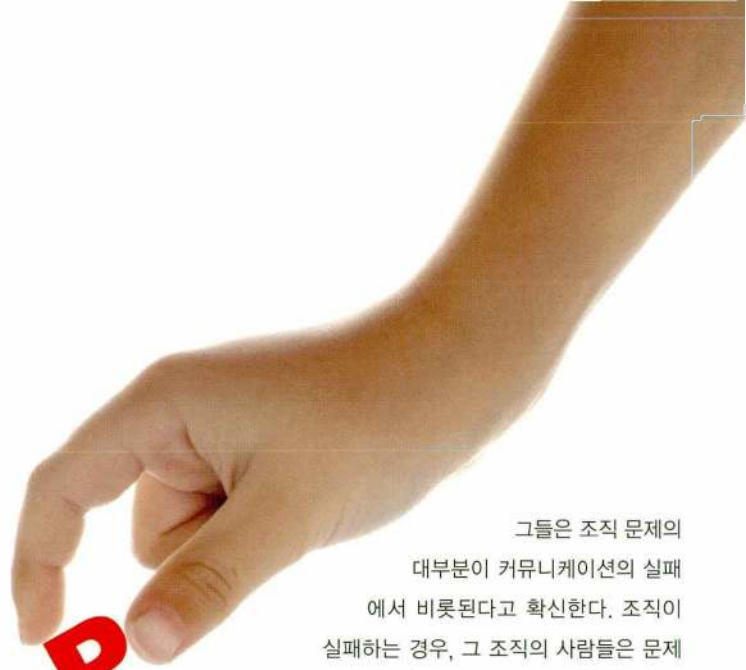
목숨 걸고 웃기는 조선시대 광대이야기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이>

놀이판에서 신명나게 노는 것만을 위해 살고, 가진 것이 없어 잃을 것이 없다는 호탕한 삶을 사는, 죽어서도 왕이 아닌 광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광대들. 최고 권력자나 시대의 영웅에 초점을 맞췄던 여타 시대극과는 달리 미천한 신분이지만 정해진 운명을 신명으로 바꿀 줄 알았던 광대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연극 <이>는 온갖 천대와 멸시에도 누구보다 떳떳했던 궁중 광대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음모,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왕과의 애뜻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룬 연극이다.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배우 감우성, 정진영, 이준기, 강성연이 출연한 영화 <왕의 남자>로도 리메이크 돼 영화 팬들과 연극 팬 모두를 동시에 사로잡았던 연극 <이>.

조선시대, 광대들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자유와 신명으로 판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연은 유쾌했지만 동시에 왕을 웃기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기도 했다.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면, 목숨 걸고 공연했던 궁중광대들의 모습을 통해 웃음의 무게를 재어보자. 그리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간 : 12월 5일까지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가격 : R 6만 / S 5만 / A 4만원
● 홈페이지 : <http://www.sejongpac.or.kr>



LEADERSHIP

그들은 조직 문제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한다. 조직이 실패하는 경우, 그 조직의 사람들은 문제를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인지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도 먼저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품질, 생산성, 안전 등등 만성적인 문제들이 발견됐을 때, 조직 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걱정하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즉, 구성원들이 조직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문화가 조직의 모든 만성적 문제들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의 대화

우리가 쉽게 접하곤 하는 대화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만약 부하가 당신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편이라면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복종하는 부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봐야 그들은 대답을 얼버무리기만 할 뿐이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당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동료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부하가 복종하는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러한 의견을 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대화의 결과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 대화라 부를 수 있다. 이번엔 승진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렇고, 이번엔 회사가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그렇고, 이혼 직전의 상황에서 배우자와 화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렇다.

또 다른 예로, 부하가 자꾸만 지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결정적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것일까? 상사는 그 부하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각을 하면 늦게 도착한 것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부하와 얘기를 나눠야 한다. 그래야 지각을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화의 상당 부분은 결정적 순간의 대화인데, 대화 방법을 모르면 침묵해 버리거나 언어폭력, 심지어는 신체폭력이나 비언어 폭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에 가정은 행복할 수 없으며, 직장의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정적 순간의 대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성공할 수도, 혹은 실패할 수도 있다.

대화를 잘 이끌어나가고자 한다면 리더는 특별히 논쟁의 와중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전체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대화에 임하는 전략을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 대화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경써야 할 점은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어떤 식으로 대화하느냐가 과연 한 조직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을까? 지난 25년 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수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들은 경험을 통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갑작스레 결정적 순간의 대화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익숙해 있는 습관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경우 물건을 집어 던지는 구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한다. 변화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을 때 변화는 그만큼 확실하게 다가온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00대 기업에 25년 간 컨설팅해서 나온 결과의 요체

인, 결정적 순간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확실한 기법을 그 강렬한 변화의 욕구와 함께 배우고 실천한다면 분명 생산성은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이미 그런 많은 조직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 조직이라고 왜 안되겠는가? 당신의 조직은 서로 신뢰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이 가을, 스스로와 조직을 숙고해 보자. **AF**



현대전 교훈을 통해 바라본 지상전력과 항공력의 역할 변화

Chapter 5. 이라크(2003) 전쟁에서 드러난 항공력



“이라크 자유 작전(OIF)”으로 명명된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 19일 개시되어 지상 전력이 투입된 지 21일 후인 4월 9일에 이라크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라크 정권이 붕괴된 직후 연합군은 작전의 4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전쟁 후 평화작전으로의 전환”과정을 4월 10일에 개시하였으며,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전쟁종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사담후세인 정권을 빠른 시간 내에 전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지상 전력과 항공력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시 등장했다.

지상중심적 관점

육군의 관점에서 볼 때 연합군이 지닌 항공력은 이라크 자유 작전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근접항공지원**과 **화력조성**에 따른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제5군단 사령관 윌리엄 월레스(William S. Wallace) 중장은 “우리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많은 근접항공지원을 받았다. 내가 베트남에 근무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전역 전체를 통틀어 시행된 항공작전 중 79%(19,898번의 공격 중 15,592번) 근접항공지원 또는 격멸구역 차단임무의 성격을 지녔고 연합기동력의 지원 아래 이라크 지상표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근접항공지원은 전술적 승리를 일궈내고 전술적 패배를 방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공력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흔히 거론되는 “망치와 모루(hammer and anvil)” 접근법, 즉 항공력을 ‘망치’에 비유하고 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지상 전력을 ‘모루’로 정의한 것과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오히려 지상 전력이 적군을 교란시킨 후에 항공력이 적을 격퇴하고, 지상 전력이 적의 생존자와의 교전을 종결하며 전쟁 직후의 지상 환경을 통제할 사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같은 지상 전력의 중요한 기능은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지상 전투는 물리적 소모가 많은 전쟁이다. 지상 작전은 적의 전력을 격퇴함으로써 정권을 전복하고 영역을 확보·유지하며 인구를 통제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다. 압도적인 기술을 통해 전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중국에는 각각의 육군 장병들이 적과 정면으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력 요소는 최신 기술을 갖춘 감지기가 아니라 인적 자원이다.

항공중심적 관점

공군 전투사령부는 브리핑 자료인 “항공력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라크 자유 작전의 교훈(Airpower Lessons from Operation Iraqi Freedom)”을 통해 “공중 지배”능력이 전역에 미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새로운 수준의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전장의 어느 지점에서든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 지상군이 즉시에 운용될 수 있었다.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항공작전이 차지한 중요성은 명백하다. 연합공군은 이라크 상공을 지배함으로써 지상영역을 신속히 지배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우주 중심지휘통제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정밀폭탄을 지상 작전과 통합시킴으로



써 10년 전 쯤에 구상되었던 작전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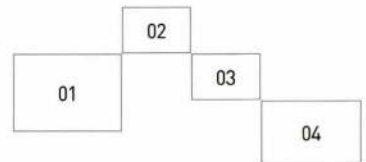
이라크군 참모(Iraqi General Staff)인 가산(Ghassan) 대령은 "우리가 패배한 주요 원인은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연합군의 항공력이 이라크 육군에 미친 전체적인 영향이 막대하였다고 회상했다. 연합군이 공중영역을 지배한 이후 대부분의 이라크군은 연합군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못한 것이다.

지상전력-항공력 간의 논쟁

이라크 자유 작전 전역의 "합동성(jointness)"은 이전보다 더욱 개선되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항공전역 직후에 지상전역이 수행된 반면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합동 상호의존성(joint interdependence)"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상전력-항공력 간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육군의 중심공격 개념과 화력지원협조선의 위치 선정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이라크 자유 작전 중 육군과 공군을 둘러싼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이전부터 제기된 전장관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본 논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상군 구성군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모든 지휘체대들의 전장인식능력이 향상되면서 발생한 결과들 중 하나는 상위 제대들이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C4ISR)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하 제대들의 임무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라크 자유 작전 동안 연합군 지상구성군사령관은 화력지원협조선의 위치를 지상군이 보유한 AH-64 등 공격헬기와 육군 전술유도탄체계 활용으로 전투지역전단(FEBA)을 지나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선정하는 등 중심지역을 확대하였다. 연합군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임무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정보, 감시 및 정찰과 공격 임무를 화력지원협조선 이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격 헬리콥터의 공격 횟수 증가는 여타 항공작전에 제약을 가했다. 아파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의 소티가 감소되었고 결국, 해당 구역 내의 화력지원협조선은 연합군으로부터 수십 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AF**



- 01 미 공군 F-15E 전투기가 이라크 자유 작전을 지원하는 전투 비행에서 플레이어를 뿔어냈다.
- 02 이라크 자유 작전에 참가한 C-17 Globemaster III의 모습
- 03 무인항공기인 RQ-1 Predator가 이라크 자유 작전을 지원하는 실시간 정찰사진을 제공하였다.
- 04 B-1B Lancer가 이라크 자유 작전에서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하였다.

방공포병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2010 유도탄 사격대회 개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방공포병사령부는 방공포병 부대의 실전적 전술기량을 종합평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10 유도탄 사격대회를 개최하였다. 유도탄 사격대회는 현재 방공포병 부대에서 운영 중인 중거리 유도탄과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을 실사격하는 것으로 임무위주의 실전적 전술기량과 교육훈련 완성을 위한 훈련이다.

이번 대회에는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방공포대와 비행단 및 관제부대 방공포병 요원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사격기술과 종합적인 작전능력을 선보였으며, 중거리 유도탄인 호크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인 미스트랄, 신궁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적기가 어떤 형태로 침투해 오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사격태세를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것은 물론 유사시 훈련한 대로 실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렀다. **AF**



호크 발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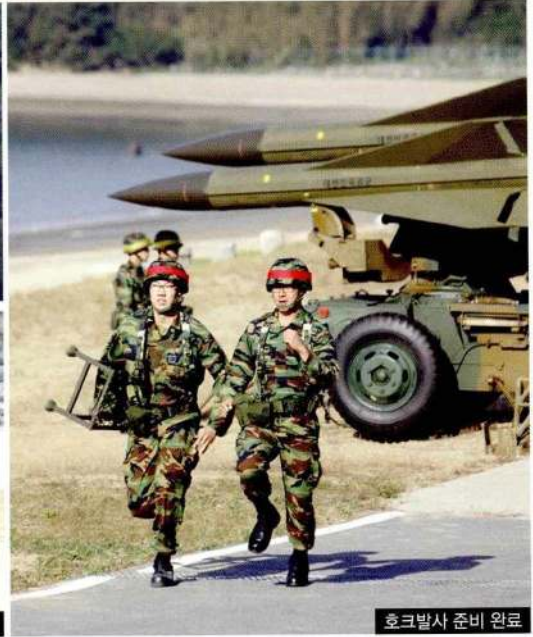
적기를 명중시킨 후 환호하는 장병들



미스트랄 발사 완료



신궁 발사



호크발사 준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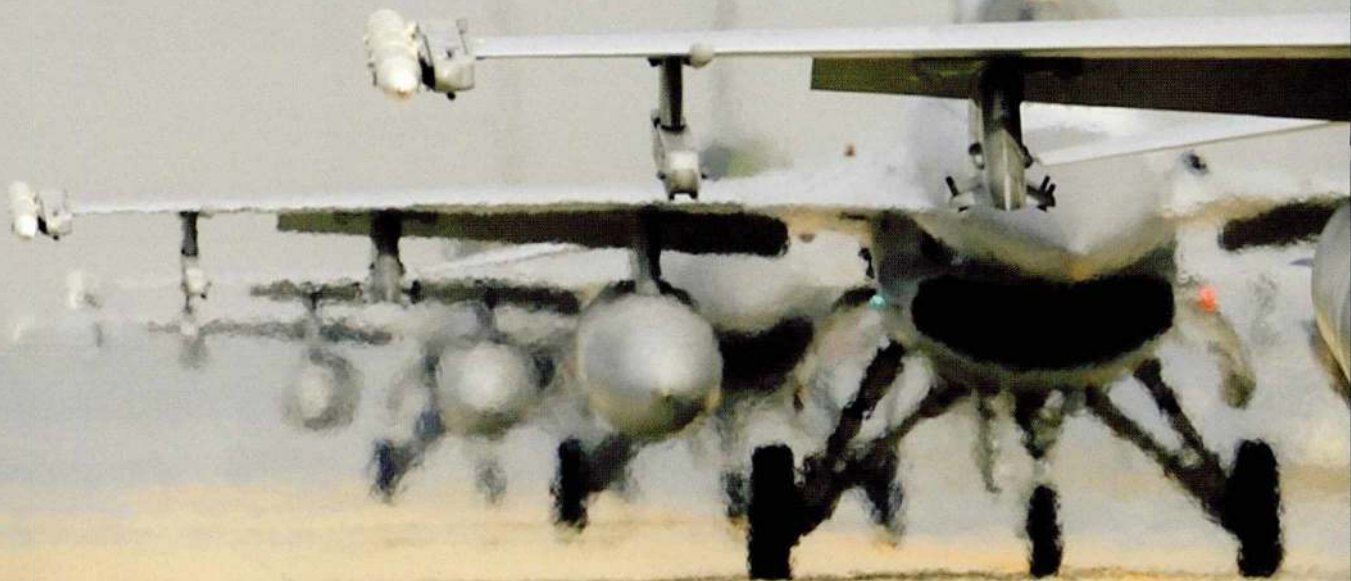
적기를 향해 비상하는 미스트랄

2010-2차 Max Thunder 훈련

한·미 공군, 한반도 상공에서 실전방불 공중대전!

- 대규모 한·미 연합 공군전력, 국지도발 대비 공중전투 훈련
- 적기 역할 전담 美 공군 한반도 최초 전개, 적 전술 대응방안 모색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확립 및 연합 전투능력 신장을 위한 한·미 공군간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10-2차 Max Thunder" 훈련)이 공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실시되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주도로 실시되었으며 적기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한·미 연합 공군이 대량편대군을 이루어 공중전을 벌이고 타격 목표에 대한 전술폭격을 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참가 전력은 한·미 주요 항공자산 50여 대로 한국 공군은 최신에 F-15K를 비롯한 KF-16, F-4E, C-130, CN-235가 참가하였고, 미국 공군은 주력 F-16이 메릴랜드, 알래스카 등 미 본토에서 참가하였다. 미 본토에서 전개하는 전력 중 일부는 공중급유를 받아 KC-135 공중급유기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는 적기 역할을 전담하는 미 공군부대(18대대/美 354비)가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전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개전력은 비행대대 자체가 미국 공군의 각종 훈련 및 연습시 적기(Red Aggressor) 역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로 평소 미그, 수호이 전투기가 구사하는 전술 및 기동을 연구하고, 훈련시 적용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응기동을 실시한다. 항공기 색깔도 아군이 사용하는 회색이 아니라 실제 미그기나 수호이가 사용하는 국방색 도장인 것이 특징이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적군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무장, 전술 등의 강도를 점점 높여감으로써 훈련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공중전에서 적군을 격퇴한 한·미 연합전력은 지상목표를 폭격하고 귀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합전력은 침투 및 가상 표적을 폭격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과 무장을, 적군은 상대적 전술구사와 무장을 운용하여 연합전력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양국 공군 모두의 공중전투기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참가 전력은 실무장 사격 없이 다양한 무장에 대한 공대공 및 지대공 사격이 가능하도록 이른 바 '비투하 무장 평가장비' (NDBS, Non Drop Bomb Scoring)¹⁾ 시스템을 활용하고, 첨단장비인 GPS ACMI²⁾의 도움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 자료를 통해 각종 무장은 운용평가 및 디브리핑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임무수행을 분석하였다.

한편, 훈련 기간인 21일에는 연합훈련의 성공적 임무수행과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공고함을 과시하기 위해 한·미 양국 부사령관의 교차 지휘비행이 이뤄졌다. 7공군 부사령관은 한국의 KF-16에, 작전부사령관은 미국의 F-16에 탑승, 공중지휘를 펼쳤다.

이번 훈련에 대해 작전부사령관은 "한층 주도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 7공군측과 전시 현장지휘체계를 구

1. NDBS(Non Drop Bomb Scoring) : 비투하 모의 무장 평가장비로서 ACMI와 연동하여 운용되는 체계이다. 실질적으로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도 가상의 다양한 무장을 투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연습탄이 아닌 실제 폭탄의 특성을 입력하여 무장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

2.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 : 공중전투기 등 훈련체계로서 공군에서 주요 작전 훈련에 활용되는 장비로 실시간 3차원 공중기동 상황 시연이 가능하다. 항공기 좌측 날개에 장착하며,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항공기의 자세, 속도, 상태와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지상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조언 및 임무에 대한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 미측 사용 Pod를 한층 항공기에 장착하여 한·미 항공기 간 공중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여 임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였다.



성하고 전 참가조종사들은 훈련참가 전 최소 2회 이상의 사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전투 돌입 태세를 갖췄다"며 "연합·합동 전장에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수수행절차를 보완·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美 18대대가 전격 참가를 결정하고 참관조종사를 비롯, 한·미 전투조종사만 250여 명이 참가하게 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어느 때보다도 전시대비 실전적 전투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공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제2의 무력도발이 감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 도발시 교전규칙에 의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기동 전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AF**



The 18th Aggressor Squadron(The Red Aggressor)

제18적기전담대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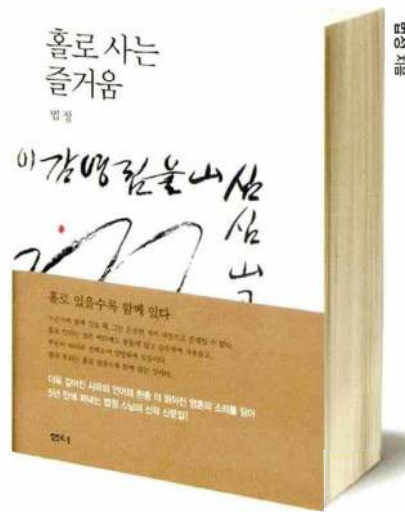


현재의 제18적기전담대대는 2007년 8월 24일에 창설되었다. 제18적기전담대대는 미래의 승리를 위하여 도전, 실제적 위협 대응, 훈련, 시험 지원, 학술 연구,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미 공군력과 합동·연합군 항공 승무원들을 지원하며 주요 임무는 그 어느 대대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가르치며, 위협에 훌륭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 1939년 12월 22일, 제18추적비행대대(인터셉터) 구성
- 1945년 3월 6일, 제18전투비행대대(쌍발엔진), 알래스카주 래드필드에서 온 P-51 머스탱 도입
- 1977년 10월 1일,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서 재창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F-4 팬텀 운용
- 1981년에 알래스카주 에이얼슨 공군기지로 이동하면서 A-10 썬더볼트로 기종 변경
- 1991년 7월 1일, F-16 팔콘으로 기종 변경하면서 제18전투비행대대로 명칭 변경
- 2007년 8월 24일, 제18적기전담대대로 명칭 변경





홀로 사는 즐거움

“스님 불 들어갑니다.” 법정 스님의 다비식에서 시신을 둘러싼 장작에 점화하기 직전, 법정 스님께 제자 스님이 올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비록 TV를 통해서였지만 다비식을 처음 구경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법정 스님께 곧 그 육신에 불이 붙게 되니 이제는 그 육신에서 빠져 나오시라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니 비록 그 한집에 깊은 정이 들었다 해도 새집으로 이사 갈 차가 앞에 대기 중임을 공지하고 신변정리를 신속히 마치고 나오시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해학과 유머가 그 한마디에 모두 함축되어 있더군요. 한국사람 중에 법정 스님을 모르거나 그의 저서를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지 법정 스님의 열반은 많은 국민들을 큰 슬픔에 빠지게 했고 ‘살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법정 스님의 도반(道伴)이라 할 수 있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 소천(召天)했을 때 스님은 이런 추모의 글을 쓰셨습니다. “올 때는 흰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함박눈 따라서 갔네. 오고가는 그 나그네여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저는 이 짧은 글 속에 담긴 스님의 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불가(佛家)의 교리에 기반합니다만 우리네 인생을 낯선 여행지에서의 하룻밤처럼 이해하고 삶을 단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호연지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법정스님의 산문집 ‘홀로 사는 즐거움’에는 그분의 표현대로 우주의 나그네인 법정이 지구별 여행의 끝자락에 경험한 것들이 콤팩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나그네들이 충분히 이별에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선배 배낭족이 남긴 여행팁

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지여행을 해 본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먼저 그곳을 스쳐간 여행자들이 곳곳에 남기곤한 메모들은 그 여행지가 처음인 다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경이 어디에 있고 어느 곳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등의 메시지들은 초행자들에게 내실 있는 여행은 물론 여행의 감동과 품격을 크게 업그레이드시켜 주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평생을 수행자로 산 스님은 끊임없이 은둔생활을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길상사 주지생활도 하셨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등 일부 모임을 이끄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틈날 때마다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 혼자지내는 생활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오두막에서 홀로 밥 끓이고 빨래하는 지극히 평범한 살림살이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그 삶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스님은 한시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소통, 즉 비언어권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스님은 우주자연의 이법을 배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동포(同胞)로서의 애정을 나누셨습니다. 나무, 새, 물소리, 바람, 심지어는 새벽에 찾아드는 기침까지도 손님의 예를 갖추어 맞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소통은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님은 소통이야말로 지구별 여행자들이 성공적으로 여행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최선의 덕목임을 틈으로 제시하며 그의 여행을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허전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꼭 한 번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F**



참모총장 지휘서신 제1호 [요약]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육성을 위하여”

친애하는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우리 공군은 지난 60년의 찬란한 역사위에 여느 선진국 공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선진 정예 공군을 건설하였으며, 새로운 60년을 기약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행사인 G20의 성공적 개최와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육성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군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소통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상대방을 존중·배려합시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을 만듭시다.

우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조건입니다.

셋째, 안전의식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모든 장병과 조직원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확인을 생활화하는 안전의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창의적으로 부대를 활기치게 관리합시다.

지휘관 및 간부들의 술선수법과 현장 중심의 부대관리를 생활화합시다.

총장은 미래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건설을 지향하면서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을 육성하는데 본인의 지휘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 부대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 부대원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관 및 간부들이 자기희생을 전제로 술선수법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공군’이라는 공동체의 의식과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을 육성하는데 열정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3일

공군참모총장 박종현



G-20 임무기지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10월 25일, G-20 임무기지인 제15훈련비행단을 현장지도 하고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진력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이날 "G20은 국가대사이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전 요원이 맡은 바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모총장은 전투요원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는 지휘관·참모의 솔선수범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하는 상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면서 이를 통해 전력이 창출됨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10년 국정감사 수감

참모총장은 10월 15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본부 참모 및 동시 수감부대장과 함께 '10년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창군 61주년을 맞은 우리 공군이 막강한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시해 준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군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육성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 접견

참모총장은 10월 12일, 주한 파키스탄 무카덤(Shaukat Ali Mukadam) 대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무카덤 대사는 "한국과 한국공군의 선진기술을 파키스탄 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참모총장은 "양국간 방산분야는 물론 공군간 군사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AIR FORCE MONTHLY

2010. 11. NEWS



Black Eagles, Air Power Day 출격!

지난 10월 9일에 개막한 Air Power Day에 블랙 이글이 푸른 창공을 활보하고 있다. Air Power Day는 매년 실시되는 미 7공군 소속 제51전투비행단의 기지공개 행사로, 미 항공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신규디자인 T-50B 항공기 4대와 기존 흰색도장의 T-50 항공기 4대가 함께 편대를 이뤄 축하비행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역동적인 비행시범을 선보였다.

사진, 군사 편집팀 | 공군본부 공보과



공군 최고의 Top Dog를 찾아라!

10전비, 제4회 공군 군견경연대회 개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공군 기지의 경계작전과 폭발물 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군견들과 핸들러(군견관리병)들을 평가하는 '제4회 공군 군견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공군 비행단에서 각각 3두씩(탐지견 1두, 순찰견 2두)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폭발물탐지·명령복종·공격 및 추격·체력측정의 4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폭발물 탐지 종목에서 최고 득점을 얻은 탐지견 1두와 명령복종·공격 및 추격·체력측정 3개 종목 합산 최고 득점을 얻은 경비견 1두를 각각 Top Dog으로 선정하였다. Top Dog으로 선정된 군견은 군견으로서 최고의 대우인 자연사를 보장받게 된다. 한편, 대회결과 폭발물 탐지 부문(하사 최규혁, 군견 홍익)과 기타 3개 종목 부문(하사 신원택, 군견 프링크)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제10전투비행단이 탐독의 영광을 차지했다. 제10비 정훈공보실

공사, 제1회 생도 「International Week」 운영

프랑스, 일본, 태국, 터키, 말련,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27명 참가

공군사관학교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1회 생도 「International Week」를 운영했다. 「International Week」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로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고, 우방국 생도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제1회 「International Week」에는 프랑스, 일본, 태국, 터키, 말련, 몽골, 필리핀 등 총 7개국에서 27명이 참가하여 국제세미나, 생도생활 체험, 역사·문화탐방, 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각국 사관생도간 교류 활성화로 군사우호를 증진하고, 체험·발표·참여교육을 통해 우방국간의 생도 생활과 교육체계를 이해하며, 한국의 역사·문화 및 안보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사 정훈공보실



공군사관학교 출신 여군 영관장교 탄생!

1997년 공군사관학교가 3군 중 최초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당시 입교하여 임관한 공사 49기 출신 여성 조종사 7명이 처음으로 공군 소령 진급이 확정되었다. 1997년 2월에 입교해 2001년 3월에 임관한 공사 49기 출신 여군은 무엇이든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박지연 대위는 전투기 4기로 구성된 1개 편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초의 여성 전투기 편대장(F-5)으로 여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장세진 대위는 수송기 분야에서 교관 자격을 획득하였다. 2001년 공사 49기 여군의 최초 임관시기를 전후해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에도 여군 문호를 개방하면서 공군 여군 인력은 현재 전체 간부 중 3.9%에 달하는 등 올해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다. 공군본부 공보과



※ 공사 49기 여성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당시 모습
(왼쪽부터 소령(진) 편보라, 박지연, 장세진, 박지원, 한정원)

전국을 수놓은 공군장병들의 하늘색 봉사 물결

공군 장병, 3만 8천여 명 동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대축제'

공군은 10월 23일 오전 3만 8천여 명의 장병 및 군무원이 한날한시에 전국 각지의 하천과 들, 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일제히 실시했다.

'공군 자원봉사대축제' 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2006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4번째이며, 공군 장병들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국민과 함께 늘 호흡하는 공군의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군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공군부대들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근무인원을 제외한 3만 8천여 명의 장병 및 군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 및 복지시설 봉사활동, 농어촌 대민지원, 의료, 이발봉사 등 다채로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여한 8전비 김명찬 병장은 "입대하고 자대 배치받은 첫날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군생활 동안 자연정화, 호우피해 대민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 위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이제 전역을 2주 남겨두고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특별한 전역 선물을 받게 된다"며 "전역 후에도 군생활 동안 체득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대학교 봉사동아리 및 교회 선교활동을 통한 자원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군본부 공보과



빨간마후라의 고향에 되살아난 화랑도 정신!

18전비, '제9회 한송정 헌다례 및 들차회' 개최



10월 7일, 제18전투비행단에서 '제9회 한송정 헌다례 및 들차회'가 열렸다. 18전비 내 위치한 한송정은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으로 조선 성종때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 신라 화랑이 이곳에서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국내 최고(最古)의 차유적지이기도 하다. 또, 문인 이인로, 김극기, 김시습 등은 한송정이 간직한 아름다운 화랑의 기상을

표현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 '강릉시 오죽헌 박물관'과 '강릉 동포다도회', '18전비'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신라 화랑께 차를 올리는 의식인 헌다례를 재연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전통차를 음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송정 헌다례 및 들차회는 매년 10월에 한송정에서 개최되며, 민·군이 함께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군의 상무정신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제18비 정훈공보실

공군, 「쌍방향 소통 정신교육 활성화」에 박차 정신교육에 건설적인 의견 개진한 우수 정신교육 옴부즈맨 8명 선발 및 시상

공군은 지난 7월부터 효과적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교육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정신교육 옴부즈맨 8명을 선발, 시상하여 쌍방향 소통에 의한 정신교육 운영체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공군부대에서 신분/계급 별로 선발된 234명의 정신교육 옴부즈맨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100여 건의 댓글을 통해 본인이 속한 소속부대 정신교육 일선에서 현 정신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부대 정훈지도 담당교관 및 피교육 장병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우수 댓글로 선정된 비행



표준단 권오성 중사는 "장병들에게 중복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내용 외 31건의 댓글을 개진하였고, 1여단 윤용복 소령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정으로 스스로 극한 상황으로 내몰라"라는 내용 외에 18건의 댓글을 개진하여 우수 정신교육 옴부즈맨으로 선정되었다. 공군본부 정훈과

16전비 115대대 국산 신예 전투기 TA-50으로 부활 1968년 창설, 2009년 잠정 해편 이후 재창설, 조국 영공 수호의 일등공신으로 재도약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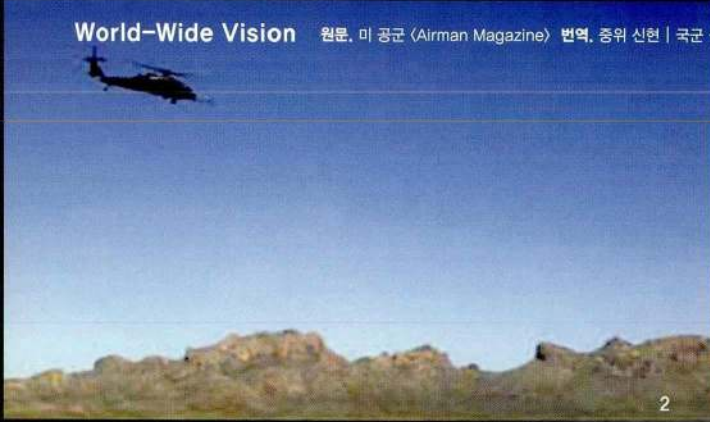


제16전투비행단 115대대가 국산 신예 전투기 TA-50을 운영하는 전투비행대대로 새롭게 거듭났다. 16비는 지난 10월 4일, 국산 전투기 TA-50의 전력화의 첫발을 내딛는 115대대의 재창설식과 정예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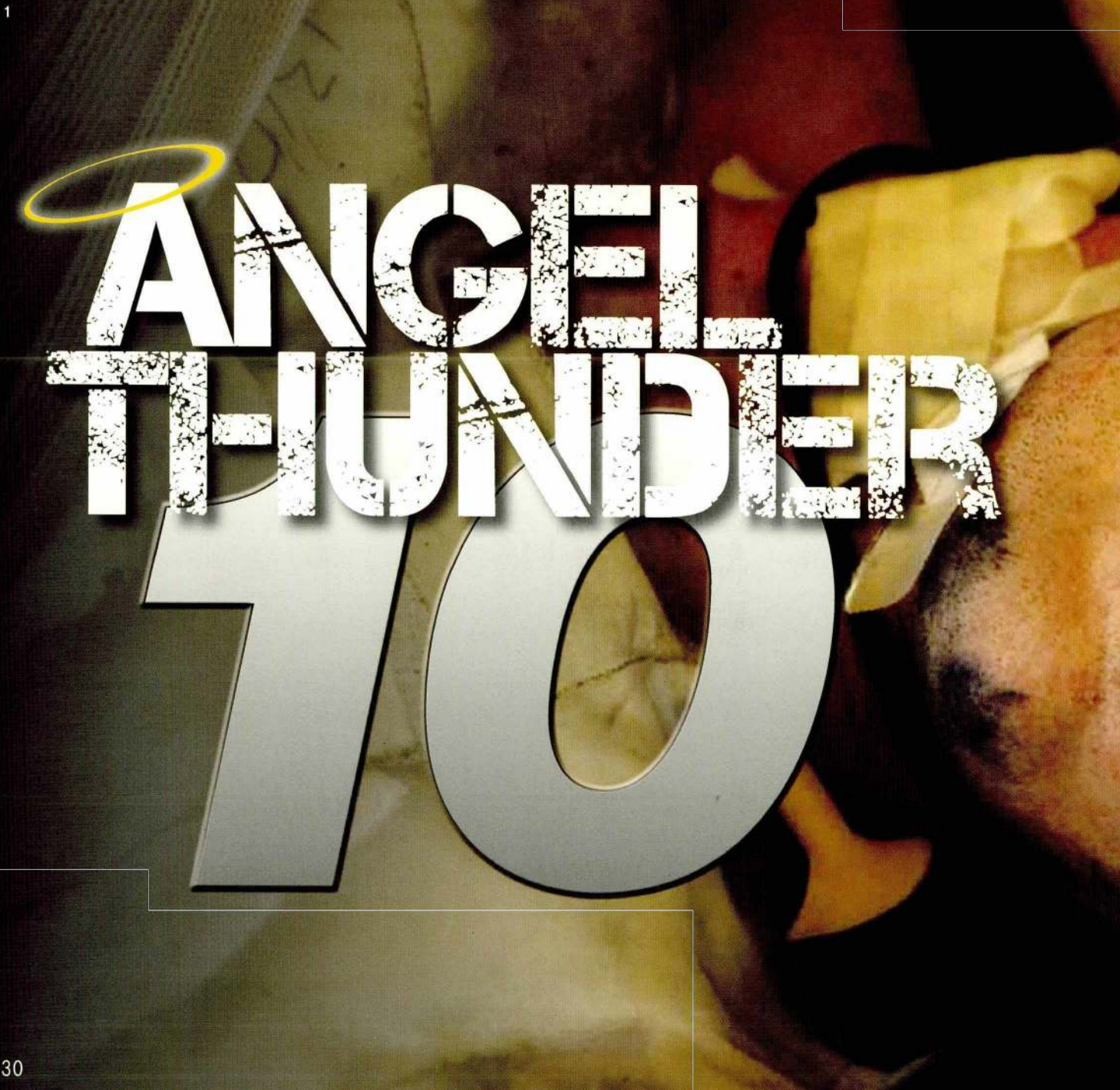
조종사 양성을 위해 최첨단 모의비행훈련장비를 운용하게 될 지상교육훈련대의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115대대장 김성훈 중령과 지상교육훈련대 대장 류지호 소령이 각각 대대기를 수여받았다. 115전투비행대대는 1968년 창설하여 북한 간첩선 격침, KAL기 납북저지 등 혁혁한 전공뿐만 아니라 F-5B 고등비행과정을 필두로 110여 개 차수의 정예 조종사를 양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조종사의 요람으로서 역사와 전통의 전투비행대대이다. 1975년부터는 F-5A/B에서 T-38으로 전환하여 공군의 조종사 양성임무를 수행하며 전투력을 창출하다 지난 해 11월에 잠정 해편되었다. 재창설 이전에도 115대대는 명실상부한 공군 최고의 전투비행대대로서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115대대의 재창설 임무를 진두지휘한 대대장 김성훈 중령은 "115대대 장병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 신념과 열정'으로 일심 단결하여 왔기에 성공적으로 재창설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선도하는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제16비 정훈공보실



1



ANGEL THUNDER 700



4

5

6

000000 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 Davis-Monthan 공군기지의 공군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Angel Thunder 10 훈련은 현존하는 최대 인원 구조/전투 수색 구조 훈련이다.

2. 알래스카 주의 Kulis 공군 주 방위군기지 소속인 공군 HH-60G가 Angel Thunder 10 훈련 기간 중 기지 주변의 사막을 비행하고 있다.

3. 국방성, 주, 지역 대응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의 연습 연합 자원들이 수색 구조 및 의무 수송 능력을 시험하는 시나리오에 참가하고 있다.

4. 애리조나 주 Davis-Monthan 공군기지 55구조대 소속인 HH-60G Pave Hawk 헬리콥터 비행 기술자 Andrew Green 병장은 자신의 사수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이 벨트는 그를 항공기와 연결시키는 개인 안전장비의 일부이다.

5. 이 훈련은 실질적인 인원 구조 훈련을 제공하는 군 합동 및 다국적 및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내 및 해외에서 자연 재해 또는 전개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6. 인원 구조는 전투 수색 구조 및 의무 수송을 통합시키는 공군의 주요 역할이다.



1. 알래스카 주 Kulis 공군 주 방위군 210 구조대대 소속인 공군 HH-60G 헬리콥터가 뉴욕 Long Island 103 구조대대 소속 공수구조요원들을 탑승시키고 있다.

2. 조지아 주 Moody 공군기지 41 구조대대 소속 HH-60G Pave Hawk 헬리콥터가 부상자 조우 지점에 2명의 전투 구조 장교와 육군 특수 부대 의무병을 투입하고 있다.

3. 조지아 주 Moody 공군기지 38 구조대대의 소속 Corey Kuttie 공군 하사가 애리조나 주 Davis-Monthan 공군기지 주변 사막에 있는 부상자 조우 지점에서 생존자들은 HH-60G로 이송하는 것을 돕고 있다.

4. 뉴멕시코 주 Playas 훈련 및 연구 센터에서 Angel Thunder 10 시나리오 일환으로 육군 특수 부대 보병과 2명의 브라질 특공대원이 급조 폭발물 생존자를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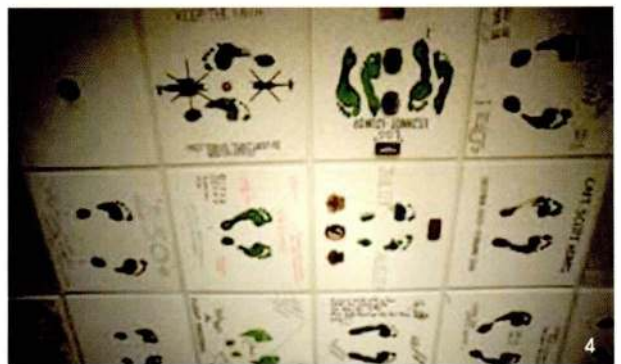


1. 육군 특수 부대 의무병이 애리조나 사막의 부상자 조우 지점에서 후송되기를 기다리는 생존자를 부축하고 있다.

2. 시나리오는 전장 구조 및 후송을 포함한다.

3. 전투 통제관은 라디오, 노트북 및 휴대용 전원 장비를 갖고 어느 곳이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공군인들은 위험한 위치에서 항공 작전을 협조할 수 있으며 구조 팀과 이송 항공기를 호출할 수 있다.

4. 55 구조대대 휴게실의 천장은 과거 대대 인원들의 녹색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 이 녹색 발자국은 베트남전부터 임무를 수행한 전투 수색 구조 인원들을 상징한다.





〈공군작전재연행사〉

빨간 마후라의 투혼과 강릉 여고생의 염원, 60년 지나도 그 자리에
6·25전쟁 100회 출격 조종사들과
강릉 여고생들의 감격적인 재회





공군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의 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공군작전 재연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군이 강릉에서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수행과 전쟁기간 중 8,495회 출격하면서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대폭격', '351 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등 전세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기념비적인 작전을 수행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공군작전재연행사>의 세부행사로 26일에는 ▲시가행진 ▲강릉시민과 공군이 함께하는 호국음악회를 개최하며, 27일에는 강릉기지에서 ▲공군작전재연 기념식 ▲축하 선도비행 ▲블랙이글스 Air Show ▲기지공개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야제로 2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시가행진에서는 공군 군악대의 힘찬 연주와 함께 참전 용사들과, 공군 기수단, 의장대를 앞세우고 강릉시 학생 고적대, 사물놀이팀 등이 참여하여 강릉과 공군의 끈끈한 유대 활동을 선보였다. 시가행진 종료 후 오후 7시부터는 강릉 실내 종합경기장에서 강릉기지 장병과 강릉시민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민과 공군이 함께하는 호국음악회가 열렸다.

27일에는 강릉기지 내 운항실 앞 주기장에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군작전재연 기념식'이 열려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의 주요 전사(戰史)인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과, 351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 출격 조종사 귀환을 전쟁 당시와 같이 재연하였다.

작전재연 기념식에는 당시 한국공군의 주력 기종인 F-51 무스타프와 가장 비슷한 기종인 전술통제기 KA-1이 투입되어,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강릉기지 정문, 승호리 철교 등을 만들어 당시 전장의 분위기를 되살렸다. 작전재연 기념식에는 당시 100회 출격기록을 달성했던 빨간 마후라들과 그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꽃다발을 건넸던 당시 강릉 여고생의 감격적인 재회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자 할머니(79세)를 비롯한 당시 강릉 여고생 5명은 작전재연 기념식에 참석한 100회 출격 조종사들과의 재회를 통해 당시 강릉 여고생들과 출격 조종사들 간의 애국심으로 뭉쳐진 송고한 인연을 보여주었다. 100회 출격 조종사들과 이 자리에서 김미자 할머니는 "당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출격, 귀환하는 조종사들과 한마음이었으며 전란의 아픔속에서 한 줄기 햇살같은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1952년 1월 최초의 100회 출격 조종사였던 김두만(당시 소령) 11대 공군 참모총장은 "강릉 여고생들은 6·25전쟁의 승전과 출격 조종사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자 F-51이 출격할 때마다 강릉기지까지 찾아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다"며 출격 조종사와 강릉 여고생간의 끈끈했던 만남을 회상했다.

작전 재연에 이어 한국공군 최신훈 전투기 F-15K를 비롯하여 F-4, F-5, KF-16, T-50과 미 공군의 F-16이 함께하는 축하비행이 이어져 반세기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온 공군의 위상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행사를 주관한 박종현 공군참모총장은 "조국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죽음도 마다않고 출격해 승리로 조국을 지켜낸 선배님들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며, 조국 영공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해외 6개국 6·25 공군 참전용사 초청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공군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공군이 참전한 해외 6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그리스, 남아공)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 210명을 초청하여 10월 13일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하였고, 15일에 제10전투비행단 부대방문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고 우방국과의 동맹의식을 강화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당시 20~30대가 대부분이던 해외 참전용사들의 현재 나이는 80~90세이다. 6·25전쟁 70주년에 해외 참전용사를 다시 초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군은 마지막 기회인 이번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왔다.

공군 해외 참전용사 초청행사는 13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됐다. 공군참모총장과 역대참모총장, 국내참전용사, 참전국 무관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참전용사들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참전국들의 민요와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따라 불렀으며, 6·25전쟁 6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날 만찬에서 박종현 공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역만리에서 참전하였던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하며 참전국 용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15일에는 참전용사들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대방문이 이어졌다. 부대 방문은 비행대대 체험, 무장 전시 견학, 항공기 기동시범 관람 등으로 이어졌으며 참전용사들은 6·25전쟁을 회상하며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최첨단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해외 참전용사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6·25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 초청한 참전용사들 중에도 미국 참전용사였던 Howard Callaway는 미 육군성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6·25전쟁 중 중위로 참전했던 태국 참전용사 Payao Sundarabhag은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캐나다 참전용사인 Lorne RodenBush 예비역 대령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해주었다. "6·25전쟁 중에 나와 동료는 미아로 남겨진 '김'이라는 소년을 데려와 옷과 음식을 주고 친구처럼 지냈다. 몇 년 뒤 그 동료가 한국을 방문했더니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 돌아보았더니 바로 그 소년이라고 한다. 기적적인 재상봉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헌신과, 성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해외 참전용사들은 10월 17일, 판문점, UN묘지 등을 둘러본 뒤 5박 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하였다. **AF**

2010

공·지·해 합동작전 세미나

Air-Ground-Sea Joint Operation Seminar

2010. 11. 17 / Amor Convention Hall



1부

한국공군 A/FAC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 237대대, 중령 김기준
한반도 SOTAC 활용방향 및 양성 정책 / 특수전교육단, 소령 조영래
합동작전을 위한 해군 무기체계 발전방향 / 해군대학, 소령 고승범
Analysis of JTAC MOA / 美 607ASOG, Major. Bridge

2부

Weapon Data Link System / 국방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전기윤
고주파 통신체계 특성 분석 / 휴니드, 방위사업본부장 송홍렬
한국형 LRF 개발 및 도입계획 / 삼성 탈레스, 대외협력그룹 신상호
GLTD Ⅲ 성능 소개 / Northrop Grumman(영오기업), 전무 이종근

주최 : 공군 공지합동작전학교

참가문의 : 934-5629(군), 033-730-5629(일반)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과 더불어 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이 시작되면서 공군의 정찰비행대는 설 사이 없이 바빠졌다.



당시 정찰비행전대는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되어 있었다. 군단의 눈이 되기 위해서였다. 또한 군단과 사단, 군단과 군단, 사단과 연대 간 신속한 연락 업무의 주역이었다. 또한 포격을 위해 포대의 눈이 되기도 하고 전투기를 유도하는 안내인이기도 했다.

박문기 소위는 육군에 파견된 L-4형 정찰기 조종사였다. 그가 조종한 L-4 정찰기는 속력이 느리고 약했지만 간이비행장을 쓸 수 있었으므로 지상군의 복진과 함께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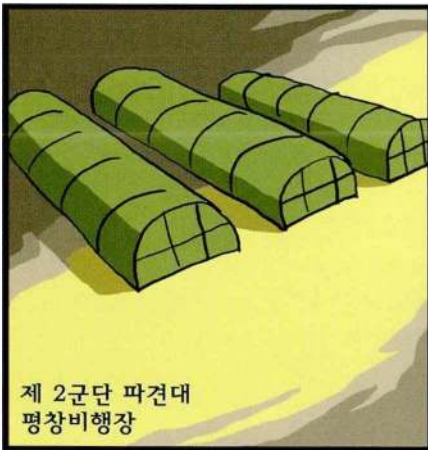


그리고 10월 1일, 원주 방향 정찰을 담당한 박문기 소위로부터 다급한 통신이 들려온다.

6·25 전쟁의 공군영웅기
Air Force Heroes 8

결사의 정찰비행, 박문기 소위

그림/토라(홍순천)



제 2군단 파견대
평창비행장



평창 비행장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골짜기에서
적군 부대 발견!



정말인가?

병력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

탕! 타탕!!



박문기 소위!
응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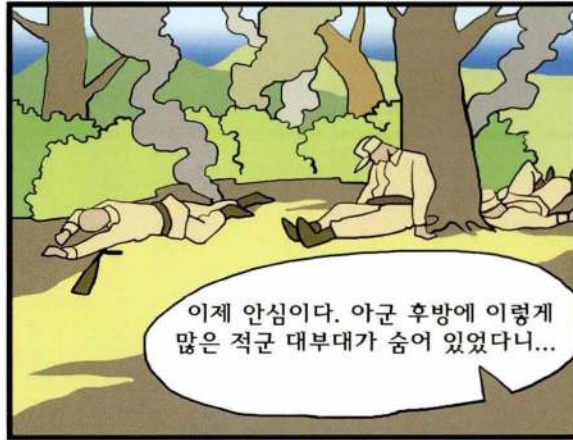
괜찮나?
방금 총소리가
들렸다. 적들에게
발견된건가?

... 괜찮다.



숨어있는 적군은
대대병력으로 보인다.

알았다. 뒤는 우리
육군에 맡기고
귀환하라!



그의 시신은 육군부대에 의해서 수습됐다. 박문기 소위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정찰기를 필사적으로 조종하여 골짜기를 빠져나와 산기슭에 불시착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골짜기에 숨어 있던 적 대대병력이 섬멸당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문기 소위의 한목숨을 적 대대병력과 맞바꾼 것이었다.

6·25전쟁에 새겨진 한국공군의 활약

6·25전쟁 60주년 기획연재

- 6월. 6·25전쟁과 한국공군
- 7월. F-51 전투기 인수와 한국공군의 최초 출격
- 8월. 한국공군의 항공작전과 팔만대장군의 보전
- 9월. 6·25전쟁 중 한국공군의 강릉기지 전개와 단독작전
- 10월. 빨간마후라의 고향에서 펼쳐진 한국공군의 공중작전
- 11월. 6·25전쟁에 새겨진 한국공군의 활약**
- 12월. 전후 전력증강과 한국공군의 성장

战斗即教育이다
 많이 배워 두라 恒常主動的
 判断은 너의實力을 等比級數的으로
 增加시킬것이다
 万-너가指揮官이 된다면 여러가지地形
 과 多方面의 flak의 位置이 떠르는
 攻襲要領을 잘 파악하모르려 너의 F를
 살릴것이다. 이것을 배우는 때가 바로
 現在이다. 많이 공부하라

김경록

| 전투일지 | 공군박물관 소장



항공정찰부대로 편성되어 유엔공군의 항공작전을 지원하고, 필요시 항공처단작전까지 수행하였던 한국공군의 T-6 훈련기



전투출격에 앞서 완벽한 정비와 무장을 수행하는 공군요원

독립정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공군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공군은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공군전력을 확보하고자 F-51 전폭기를 인수하여 남진하는 북한군을 향해 출격하였다. 지상요원들은 잔목이 널린 허허벌판을 맨손으로 정리하고, 영어는 모르지만 미 공군의 항공기 정비를 배워 밤새워 고철부속을 정비하였다. 항공기 매뉴얼에 기재된 고도가 아닌 무모하리만큼 낮은 고도까지 급강하한 한국공군은 공격목표를 폭격하였다. 찬란한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폭격하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공비행으로 무장공비를 몰아내고, 강릉기지와 사천기지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전략폭격, 후방차단작전, 보급로차단작전, 무장공비소탕작전을 성공시켰다.

창군에 연이은 전쟁의 발발과 처절한 공군력 확보 노력

1920년대 “하늘을 지배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국에서 한인 비행학교를 세운 대한독립군 군무총장 노백린은 항공력의 중요성을 간파하였으며, 독립정신을 계승한 공군 선배들은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국민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¹⁾.

창군기 항공인들은 북한공군의 전쟁준비 상황을 간파하고, 전쟁시 공군력의 불균형이 가져올 위험성을 분석하여 『항공의 경종』을 보고함으로써 1949년 10월 공군으로 독립하였다. 공군의 독립은 공군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공군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육군 중심의 당시 군사력 개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군력을 강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우선 전쟁에서 공군력은 전투기의 확보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군사문제 인식에서 공군력은 미 공군이 대신한다는 정책으로 전투기 확보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훈련기에 기중을 탑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성금을 모금하여 1950년 5월 14일, T-6 훈련기(건국기) 10대를 구매하였다²⁾.

창군이후 편제정비와 훈련도 미처 시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발한 6·25 전쟁에 한국공군은 맨손으로 맞아야 했다. 공군의 특성상 안전한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군본부와 작전지휘소를 대전으로 이동시키고,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군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하였던 전투기는 전쟁 발발 다음날 미 공군으로부터 인계가 결정되었다. 일본에서 미 공군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는 동안에 전선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조종사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세는 한국공군의 투철한 군인정신이자 공군정신의 표현이었다. 전투기는 장기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필요하였지만, 한국공군은 1차례의 비행기지 장주비행(착륙하기 전에 비행기지를 선회하는 비행)만으로 전투기 조작훈련을 대신하고 일본 이다즈께 기지를 출발하여 현해탄을 넘어왔다.

절대 위기를 공군작전의 기회로

전쟁 초기 대구기지는 넓은 활주로 길이와 대구의 지휘본부가 존재하여 유엔공군이 활용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군기지였다. 미 공군은 대구기지를 전진사령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지로 지정하고 각종 전력을 전개시켰다. 한국공군은 진해기지, 제주 모슬포기지를 급히 마련하여 생도와 항공병 등을 훈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군은 우리가 직면한 전쟁에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미 공군으로부터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국공군 조종사가 출격하여 공군작전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투기 확보, 비행기지 건설, 전투조종사 양성이었다. 한국공군은 미 공군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당시 맹활약하였던 F-51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사천, 제주, 진해 등 후방기지를 급히 마련하여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F-51이 도입되고 인수팀마저 1주일의 지상훈련과 1회의 조종훈련만을 받았기 때문에 미 공군의 6146부대 조종사들에게 조종훈련을 받으며, 일면 전투, 일면 훈련을 수행하였다. 한국공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6146부대는 한국공군에 대한 훈련과 자체 미 5공군사령부의 계획에 입각한 전투를 병행하였다. 1950년 7월 이근석 대령의 전사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다. 미 공군은 전투출격을 통해 훈련을 수행하자는 의견이었으며, 한국공군은 인수한 F-51에 대한 단축된 적응훈련을 거쳐 출격하자는 의견이었다. 전투기 인수과정에서 미흡한 적응훈련은 무모한 한국공군 조종사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단 몇 차례의 이착륙 훈련만 받고 출격하면 전사하는 것이 불 보듯 명확하였기 때문에 한국공군은 사천으로 병력을 집결시켜

1. 김경록, 『해방 이후 남북한의 공군력 인식과 한국전쟁 준비과정』, 『군사』 67, 2008, 171쪽.

2. 김경록, 『6·25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군사』 73, 2009, 83~93쪽.



2주간의 신속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한국공군은 적응훈련을 마친 전투조종사를 중심으로 미 공군과 함께 출격하여 김포기지, 평양 미림기지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1년 8월에 미군으로부터 작전준비태세훈련을 받고 강릉기지를 건설하여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단독작전을 전개하면서 전투출격이 가능한 조종사들을 2팀으로 나누어 강릉기지에서도 전투출격하는 팀과 사천에서 전투조종사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팀으로 운영하였다.

정규 조종훈련을 이수하기에 짧은 훈련기간으로 수많은 조종사들이 산화하였다. 한국공군은 1950년 7월 3일 F-51전투기가 첫 출격을 시작한 이래 휴전 시까지 총 8,495회를 출격하였고, 이 기간 중 39명의 전투조종사가 100회 이상의 출격을 기록한 반면, 17명의 전투조종사가 산화하였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으로 한국공군은 6·25전쟁 중 "일면 전투, 일면 건설"이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력 증강으로 휴전 당시의 전력은 제10전투비행단 예하에 3개 비행대대로 편성된 F-51 전투기 97대를 포함한 총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으로 성장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작전지원, 정보 수집체계의 미흡, 한정된 교육체계 등 각종 후방지원체계가 완전하지 못해 공군 작전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늘에 수놓은 공군인의 열정과 명예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더라도 북한군의 격퇴하고자 한국공군은 1950년 7월 4일 안양상공의 첫 전투기출격에서 뛰어난 조종사였던 이근석 대령이 적 대공포화에 피탄되어 산화하였다. 정찰비행대를 편성하여 유엔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9월부터 낙동강 전선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의 공세에 대해 한국공군은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 통영상륙작전, 영천지구전투에 항공지원을 하였다.

전투출격이 가능하였던 조종사를 백구부대로 편성하여 6146부대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이후 김포기지, 평양 미림기지 등으로 전진하여 출격하였다. 10월 13일, 한국공군의 박희동 대위와 이상수 중위는 미 공군 조종사와 함께 평양상공

에서 김일성 대학 부근의 군사표적을 공격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이상수 중위와 적 지역포화에 피탄되어 애기와 함께 적진에 돌입하여 24세를 일기로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은 항공작전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특히, 제트엔진을 장착한 MIG기의 출현은 프로펠러 전투기였던 한국공군의 F-51 전투기 출격에 큰 제한사항이었다. 다양한 공군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그기와 조우하면 항공기의 성능에 있어 절대적인 약세였기 때문에 큰 위협이었다. 미림기지에서 후퇴하는 과정에 한국공군의 C-47수송기는 3차에 걸쳐 공군비행단의 부대철수를 지원하는 한편 미림기지로 몰려든 전쟁고아들을 여의도기지까지 공수하였다.

호국정신의 위대한 유산을 단순 항공폭격보다 우선시하여 저고도 위협비행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하여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존하였다. 강릉기지에서 단독 출격한 한국공군은 12대의 전투기를 운영하여 원산작전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전력의 미 공군에 버금가는 전투성과를 거두었다. 작전범위가 확대되면서 평양을 비롯한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공군작전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져 1일 평균 19.6회를 출격하였지만, 전투조종사, 정비사, 지상요원 그 누구도 어떠한 희생에 대해 말없이 묵묵히 수행하였다.

전쟁의 와중에 체계적인 조종훈련도 받지 못한 한국공군의 전투조종사들은 전투훈련에 대한 열정과 집중된 반복훈련을 통하여 출격하였다. 평양상공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이시영 소령, 1952년 1월 11일, 한국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소령, 1953년 5월 30일 최초로 200회 출격을 달성한 유지근 대위 등 한국공군의 전투조종사들은 유엔공군이 무모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공군작전을 수행하였다.

조국애의 발현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전투조종사가 된 박무원 대위는 89회 출격기록을 달성하고, 다른 조종사의 출격을 지원하여 출격하였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하였다. 동료 조종사들은 그의 영정을 전투기에 안고 출격하여 100회 출격을 달성함으로써 위국 헌신하고자 한 박무원 대위의 영혼을 위로하였다.³⁾ 수 없는 출격의 와중에 공군인은 동료에 대한 안부와 혹시나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생각한 만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03



도 하였다⁴⁾.

“전투(戰鬪)는 교육(教育)이다.

많이 배워두라 항상주동적(恒常主動的) 판단(判斷)은 너의 실력(實力)을 등비급수적(等比級數的)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만일 너가 지휘관(指揮官)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형(地形)과 다시면(多示面)의 flake(공중 목표)의 위치에 따르는 공격요령(攻擊要領)을 잘 파악함으로써 너의 부하(部下)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배우는 때가 바로 현재이다. 많이 공부하라.

배선(培善).”⁵⁾

전투조종훈련을 받고 이후 전투조종사로 맹활약하였던 이배선 예비역 대령이 훈련과 작전 과정에 매일 일기형식으로 적었던 전투일지의 머리말이다. 당시 공군 전투조종사들의 각오를 잘 보여주는 일지로 열악한 작전과 훈련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였던 노력이 그대로 담겨있다.

또 다른 일기를 살펴보면, 1953년 6월 13일 F-51 전투기로 지상군 공지협동작전 수행 중 강원도 고성상공에서 피탄되어, 적 탱크에 자폭 전사한 공사1기 출신 김현일 대위는 일기장에서 전투조종사가 출격하는 상황의 어려움을 오직 전투 참가 일념으로 극복한다고 표현하였다.

출격, 출격, 출격을 전투조종사들은 이러한 일념으로 수행하였다. 꽃다운 청춘은 출격과정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희생을 묵묵히 감수하였다. 짧은 일생을 나라에 바친 고훈에 대해 동료들은 한 장의 추도사에 담아 영령을 위로하고 다시 출격하였다. 1952년 12월 17일에 강릉기지에서 거행된 고 신철수 소령 추도식에서 비행단장 장덕창 준장은 비감한 마음으로 추도사를 낭독하고 동료들은 고 신철수 소령이 개척한 승리의 큰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창공을 철석같이 수호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맨손으로 시작하여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전투기를 인수하여 밤새워 정비기술을 익혀 주야로 출격준비를 갖추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출격에 대한 열정과 도상훈련으로 무장한 전투조종사가 출격하였다. 출격순간 이미 조국의 하늘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목숨은 하늘에 새겨둔다. 6·25전쟁의 한반도 하늘에 전투기의 아련한 출격과 적의 대공포화에 꽃다운 한국공군의 열정과 명예가 공군작전으로 새겨져 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 선배 공군인들의 희생과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AF**

- 01 고 박두원 대위의 100회 영정출격 장면
- 02 한국공군 전투조종사들의 공군작전에 맹활약하였던 F-51 전투기
- 03 고 신철수 소령 추도사 _ 공군박물관 소장
- 04 임택순 대위의 서신

3. 「동료들이 영정되고 100회 출격기록」, 『조선일보』 1990년 6월 26일.

4. 임택순, 『고 임택순 대위 서신』 공군박물관 소장.

5. 『전투일지』 공군박물관 소장.

항공 독립운동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2)

해방 전 우리나라 항공역사의 흐름과 성격

해방 전 항공 독립운동의 역사는 물론 망명대해 고도(孤島)처럼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 역사는 국내·외 무장 독립운동, 각종 사상 및 계몽운동, 민간대학, 민족학교, 도서관 설립 등 교육 독립운동, 과학 독립운동 등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제 36년 지배'의 시기를 바라보던 관점도 많이 달라져 해방 후에 '일제 시대'라고 통용되던 용어는 '일제강점기'로, 최근에는 '대일 항쟁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불행했던 시기에 대한 적극적으로도 다양한 재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항공독립운동의 역사는 이런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해야 한다. 해방 전의 우리나라 항공인들의 활동을 모두 '항공 독립운동'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가 되어 버린 조국의 땅에서 1913년 일본인들이 만든 비행기로 일본인이 비행한 이후로 그들에 의하여 비행장이 만들어지고 항로가 개척되었지만 이것은 식민지배와 대륙침략의 일환에 불과하며 우리 민족을 위한 항공은 아니었다.

독립운동과 과학기술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항공활동(1910~1930년대)

비록 조국 강산과 하늘은 빼앗겼지만 우리 항공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10년대에 근대 항공에 대해 눈을 뗐으며, 1920년대는 러시아에서(27비밀결사대에서 활약한 김공집 비행사 등), 미국에서(한인비행기양성소의 한창호 비행사, 1920년 미국 해군 항공대 노정민 비행사 등), 유럽에서(1918년 미국 육군 항공대 이윤호 비행사, 리성창 항공병 등), 국내에서(1923년 이후 모국방문 비행과 과학화 운동에 앞장섰던 안창남, 1930년대 국내 항공사업을 개척한 신용인 비행사 등), 일본에서(일본 활공 신기록을 갠 김광한 비행사)의 활동과 중국에서는 임시정부(도산 안창호를 이어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항공선전활동, 비행대 창설시도, 비행기구 입시도, 중국비행학교의 위탁교육을 통한 항공독립운동가의 양성 등 우리 항공인들의 활약상의 흐름을 그려 볼 수 있다.

또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 미국 등지에서 비행학교를 다니거나 활동하던 항공인들이 중국으로 망명,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던 항공인들(서알보, 최용덕, 권기옥, 이용무 등 수십여 명)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합류는 중국을 무대로 항공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는 흐름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서알보, 김공집, 안창남, 김자중 등이 비행사고로 숨진다. 비운에 숨졌지만 서알보, 안창남은 당시 국민적 영웅으로서 식민지인으로 전락한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전운이 돌면서 우리 항공인들은 중국 내륙을 침략한 일본군들과의 전쟁을 조국 독립과 직결된다는 믿음 속에서 중화민국 항공대에서 활약한다. 1926년 중화민국(장개석의 국민정부) 항공대 창설 멤버였던 최용덕 장군은 1930년대 초(1931~1933) 지청천 장군과 함께 만주에서 일본군과 만주군을 상대로 전투(쌍성보,



윌로스비행학교 최초의 비행사들



안창남



중국항공대 부참모장 최용덕 준장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중 일부를 벌이는 등 무장독립운동도 펼쳐지며, 중일전쟁 중, 중소연합항공대가 있던 남창기지의 사령관 등으로 활약했고, 전상국은 폭격대대 조종사로, 김은제, 김원영 등 다수의 항공인들은 추격대대 조종사로, 장성철, 김영재와 염은동 등은 정비 기술자 등으로 활약한다.

군사외교의 일환으로서의 항공활동(1940년대 해방 전까지)

일본 패망이 눈앞에 보이자 백범 김구는 전쟁 이후를 준비했다. 즉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입지를 높이기 하였다. 여기에 비행대 창설시도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종전 후 연합국으로서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침략자 일본에 대한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행대 창설계획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중국 경내와 태평양 지구 한국광복군 비행대 조직·연락·운수 및 맹방(盟邦) 공군과 연합 작전할. 둘째, 중국 경내의 한국광복군 비행대는 현재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는 한국인 비행 인원을 최대 활용—독자활동, 연합작전 수행. 셋째, 한인 비행사들의 양성. 넷째, 태평양 지구 한국광복군 파견 사령부 소속 비행대의 조직은 재 미주 한국인 비행사를 기조로 한 시행 등이다.

우리나라 항공역사의 시작(원년)은 몇 년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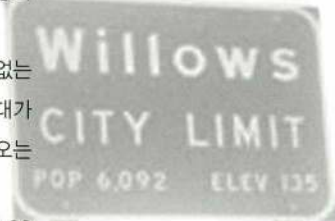
지면 관계상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렇듯 해방 전 항공역사의 흐름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항공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구현해야 하는 어떤 가치 혹은 전체성을 획득하려 했던, 당시 항공과 함께한 삶이 의미부여를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근대 항공의 원형이며 출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 항공역사의 시작(원년)은 몇 년도인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해방 전 항공역사의 성격규명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고, 항공활동의 토대가 되는 물리적 요소, 항공이론적(기술적) 요소, 인적 요소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불완전성에서 오는 이유 탓이다. 과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아무튼 해방이 되면서 해외 각지에서 활약하던 항공인들이 국내로 귀국한다. 1946년 7월 26일 조선항공기술연맹, 조선학생항공연맹, 중앙항공연구소 등의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이 아서원(雅叙園)에 모여 통합 항공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1946년 8월 10일 서울 YMCA에서 '한국항공건설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항공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초대회장은 만장일치로, 15세의 나이로 중국으로 망명, 풍운아처럼 이십여 년간 항공 독립운동을 펼친 최용덕 비행사가 추대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공군'을 창군하는 기틀이 마련된다. **AF**



영화 '청연'의 모델 박경원, 최초로 한국 하늘을 난 안창남,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왼쪽부터, 주간 동아 517호 게재)



메가마인드

MEGAMIND



“벤처마킹을 모델로 삼아선 리더가 될 수 없다”

영국 버진 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세계 최고의 창조적 경영자들 중 한 사람으로 꼽히지요. 그가 최근 국내의 한 지식포럼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더군요. “벤처마킹을 모델로 삼아선 리더가 될 수 없다.” 타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이 업계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뜻에 보태어 저는 이렇게도 풀이를 해봤습니다. ‘남의 생각이나 전략을 벤치마킹만 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문득 얼마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리틀 빅 씽 The Little Big Things>입니다.

Don't imitate. Innovate.

<리틀 빅 씽>은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법칙’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경영 사상가인 톰 피터스(Tom Peters)가 쓴 책입니다. 그동안 <미래를 경영하라>, <초우량 기업의 조건> 등 주로 기업가나 경영자를 위한 경영서를 써온 그가 이번엔 자기계발서를 썼다는 게 참 신선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벤처마킹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퓨처마킹(futuremarking)의 시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방하지 말고(Don't imitate) 혁신하라(Innovate)’는 뜻이지요.

제가 이번 글에서 ‘퓨처마킹’의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대작 영화들이 얼마나 퓨처마킹을 위해 ‘창조적으로’ 고심하는지 짚어보고, 아울러 그런 창조적 산물의 한 사례로 3D 장편 애니메이션 최신판인 <메가마인드 Megamind>를 소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드림웍스가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하려면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상력은 미래의 예고편이다(Imagination is a preview of the future).”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상력’이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가능하겠지요. 관객이 5년 뒤어나 만나게 될 영화를, 5년 뒤 관객들의 기대치와 정서 및 감각을 5년 전에 이미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퓨처마킹 상상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뜻이지요.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가 온다

<메가마인드>는 <슈렉> 시리즈를 완성했고, 2011년 여름 시즌 개봉 날짜에 맞추어 <쿵푸 팬더> 2편을 제작하고 있는 드림웍스가 만든 대작입니다. 이 영화의 미국 포스터 홍보문구는 ‘The superhero movie will never be the same.’입니다. ‘완전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콘셉트에서도 우리는 모방(imitation)이나 벤치마킹이 아닌, 혁신(innovation)과 퓨처마킹의 전략을 읽을 수 있지요. 또한 ‘never be the same’으로 상징되는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

의 창조성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메가마인드>는 두 아기가 폭발 위기에 처한 어느 외계 행성을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한 아기는 흉악범들이 득실대는 교도소에 떨어지고, 나머지 한 아기는 크리스마스트리가 형형색색의 빛을 밝히는 화목한 가정에 떨어집니다. 교도소에 떨어진 아기는 커서 악당(antagonist, supervillain, 메가마인드-윌 패럴)이 되고, 화목한 가정에 떨어진 아기는 영웅(protagonist, superhero, 메트로 맨-브래드 피트)가 됩니다. 메가마인드는 속적 메트로 맨과 대결을 펼치면서 영화의 무대인 메트로 시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트로 시티의 영웅인 메트로 맨을 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메가마인드는 미모의 리포터 록산드를 인질로 삼아 메트로 맨을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에 성공합니다.

메가마인드를 능가하는 악당 탄생

메가마인드는 마침내 속적을 꺾습니다. 그러나 메가마인드는 행복할까요?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메가마인드는 자기를 대신해 도시를 파괴할 새 악당을 탄생시킵니다. 그는 다음 아난 록산드의 단짝인 카메라맨 할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할은 뜻하지 않게 슈퍼파워를 갖게 되자 사정없이 날뛰니다. 그런데 할의 행동이 극악해지자 덜컥 걱정이 된 메가마인드는 메트로 맨에게 찾아가 할을 제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메트로 맨의 반응은?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덮어드립니다. ‘완전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퓨처마킹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누설함으로써 관객의 특권을 해칠 순 없으니까요.

“You are destined for greatness.”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힌트를 하나 살짝 드릴게요. 도입부에서 메가마인드의 아버지가 캡슐을 타고 행성을 탈출하려는 아기 메가마인드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You are destined for greatness.” 위대함의 운명을 타고 났다는 뜻이니 메가마인드의 악당 캐릭터에 혹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 이 장면은 1978년에 나온 <슈퍼맨 Superman>을 패러디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태양이 폭발할 위기에 처하자 위험에 빠진 크립톤 행성의 조엘(말론 브란도)이 훗날 슈퍼맨으로 거듭날 아기를 캡슐에 넣어 탈출시키는 장면이 <슈퍼맨>에 나오니까요. **AF**

이미도(작가, 외화번역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74309>

<http://www.imdb.com/title/tt1001526/>





빛의 화가 Rembrandt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성서, 신화 역사 등 다양한 소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일찍이 네덜란드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렘브란트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 작품이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다. 렘브란트는 예술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무명의 화가였지만 렘브란트의 재능을 눈여겨 본 화상의 도움으로 당시 최고 유명 인사였던 틸프 교수의 해부학 공개 강의를 그리게 된다. 결국 모델들의 특징을 살린 이 작품으로 인해 20대의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이 작품은 틸프 교수가 1632년 1월, 강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부학 극장에서 공개 강의를 묘사한 것으로 당시 해부학 강의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까지 강의를 들을 정도로 인기 강의였다. 틸프 교수는 시체의 왼쪽 팔을 절개하여 핀셋으로 힘줄 몇 가닥을 집어 보여주고 있다. 틸프는 암스테르담 의과대학 외과의 조합 회장으로 팔 근육의 해부가 특기였다. 렘브란트는 틸프 교수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시체의 팔뚝을 절개하는 순간을 포착해 표현했다. 외과의사 길드의 회원 7명의 인물들은 시체 주변에 모여 틸프 교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7명의 인물들을 렘브란트는 실제의 용모와 닮게 그렸다. 그는 인물들의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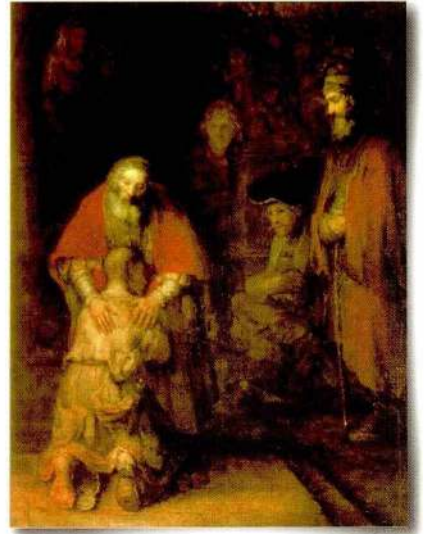
사실적으로 묘사된 화면 중앙에 있는 시체는 범죄자 아드리안이다. 부랑자였던 그는 처형된 후 의학대학 해부용으로 기증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앞에 펼쳐진 책은 해부학 책이다. 렘브란트는 외과의사 길드 회원들 기대에 맞게 8명의 반신 초상화를 한데 모아 집단 초상화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그가 처음 그린 집단 초상화지만 작품을 제작하면서 전통적인 기법에 따르지 않았다.

렘브란트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성취보다는 밝고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해 인물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그림들을 선호하면서 점점 초상화 의뢰는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렘브란트는 과도한 낭비벽으로 인해 파산했고 채권자들은 빛을 받기 위해 그를 법정까지 세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던 렘브란트에게 다이만 교수가 공개 해부학 강의를 그려달라고 의뢰한다.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를 그린 지 23년만이었다. 다이만 교수는 틸프 교수의 후임으로 암스테르담 의과대학 검사관이었으며 그의 해부학 강의는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가 걸린 교실에서 행해질 예



〈필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1632년, 캔버스에 유채, 169*216, 헤이그 마우리치호이스 미술관 소장



〈돌아온 탕자〉
1668~1669년경, 캔버스에 유채, 262*206, 상드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요하네스 다이만 박사의 해부학 강의〉
1656년, 캔버스에 유채, 100*134,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소장

정이었다. 1723년 화재로 3/4가 소실된 이 작품의 원본은 시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여덟 명이 그려져 있었다. 남아 있는 작품에서는 시체 위 다이만 교수의 손이 보이고 두개골을 들고 있는 조수만 완벽하게 남아 있다.

작품의 초안을 보면 렘브란트는 첫 번째 작품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고자 다이만 교수가 해부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전작은 팔의 근육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부학보다는 초상화 성격이 강했다면 후작은 시체의 뇌를 꼬집어 내는 순간을 포착했다. 두개골이 절개된 시체의 머리를 다이만 박사는 뇌를 꼬집어 내려고 하고 있고 조수는 절개된 두개골 뚜껑을 들고 있지만 시선은 시체의 머리에 있다. 내장을 들어낸 시체의 배는 뚫려 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전작과 다르게 실험을 한다. 시체의 발을 앞으로 배치해 인물의 실제 모습보다 더 짧게 보이게 하는 단축법을 사용했다.

렘브란트는 말년에 가난하지만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렸다. 렘브란트가 말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제작한 작품이 〈돌아온 탕자〉다. 이 작품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늘에는 누우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는 누우치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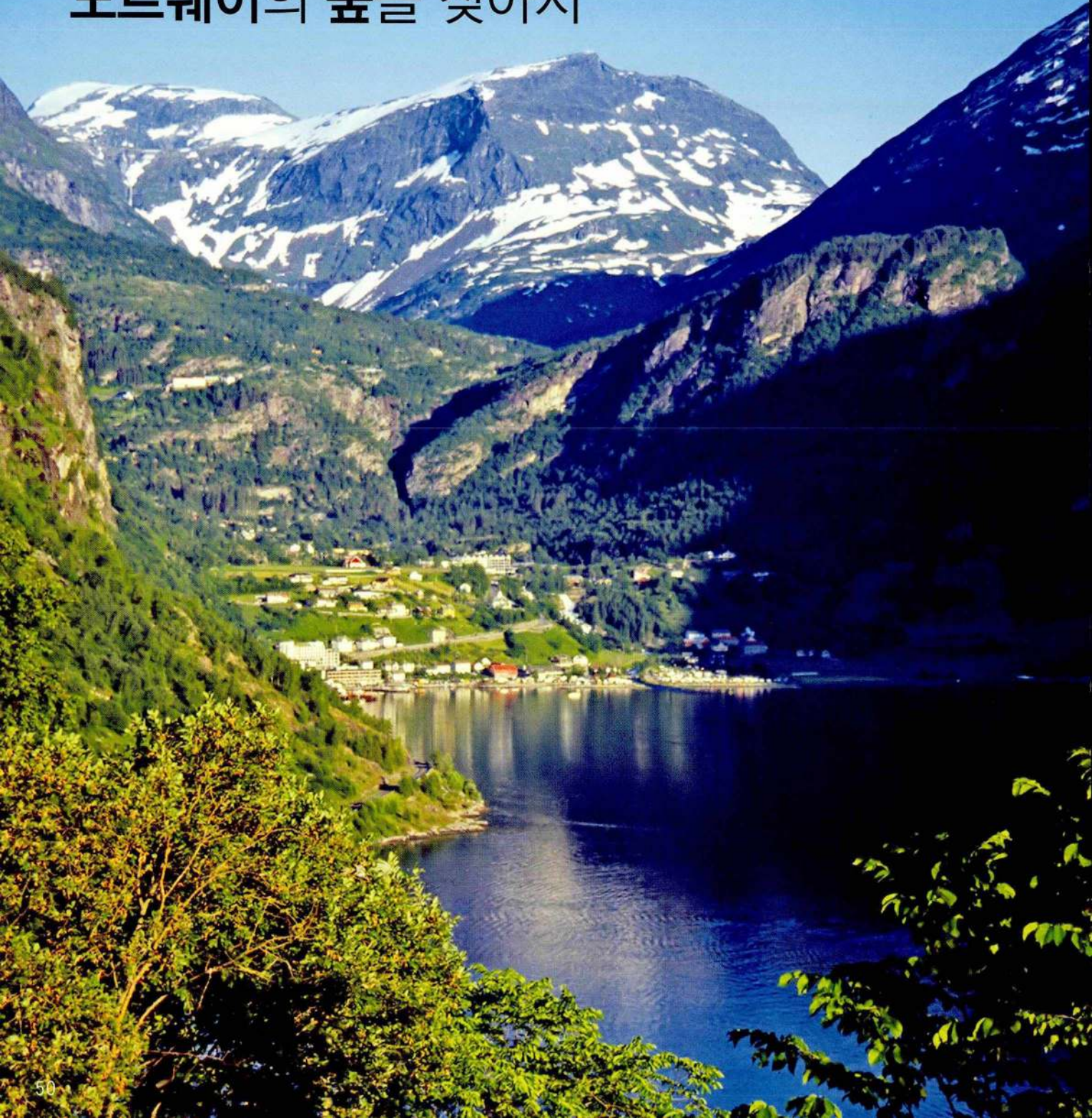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은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다 떨어진 옷과 낡고 보잘것 없는 신발을 신고 있다. 그의 차림은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 하면서 붉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과 풍성한 옷은 아들의 행동을 용서하고 품에 안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머리를 꺾고 두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참회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렘브란트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담아냈다. 렘브란트의 최후의 미완성 성화 중에 하나로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의 용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렘브란트 반 레인(1606~1669)는 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삶의 전반기는 부와 명성에 쌓인 화려한 시기였다면 후반기의 삶은 가난과 실의에 빠져 있었다. 렘브란트의 인생처럼 작품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전반기의 작품은 혁신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작품이었다면 후반기의 색채는 서로 화합하며 빛은 더 가라앉는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예술의 원숙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가 생애 마지막까지 이르는 20여 년 동안이다. **AF**

노르웨이의 숲을 찾아서





작곡가 안스네스



그리그의 집

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 무덤... 그것은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떠올려지지도 않는 장소다. 아직도 멀기만 한 작은 공간...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지면, 무덤이라는 장소도 때로 그리움의 공간이 된다. 그리운 이가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추억의 장소가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덤들... 그것은 그 자체로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꼽으려면,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작곡가 부부의 무덤이 아닐까 한다.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도시 '베르겐'에서 태어난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 그는 햇살 가득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음악을 구상하며 작품을 쓰던 성실한 작곡가였다.

지금도 노르웨이를 찾는 관광객들은 작곡가 그리그가 살던 집을 찾는다.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잡은 작곡가의 소박한 집.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곡가의 작업실. 관광객들은 푸르른 숲에 쌓인 조용한 마을을 찾아 작곡가의 음악을 다시 듣는다. 넓은 창가로 내려다보이는 푸르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감싸고 있는 따스하고 밝은 햇볕... 작곡가가 살았던 이곳은 관광객들의 마음에도 평온함을 나눠준다.

그리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맑고 투명한 그 자체로 노르웨이의 자연이다. 푸른 물결이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곡했던 작곡가처럼, 그의 음악에는 노르웨이의 자연이 녹아 있다. 그리그가 '북구의 쇼팽'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노르웨이의 대자연 덕분이 아닐까.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은 투명한 맑음이 바로 그리그의 음악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곡가는 평소에 작곡을 하던 작업실과 가까운 곳에 자신의 무덤으로 마련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바위의 동굴 속에 영원한 쉼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 해 온 반려자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북구의 자연을 닮은 또 한 명의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Leif Ove Andsnes, 1970~). 그는 작곡가 그리그의 음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은 피아니스트다. 햇볕이 내리쬐는 창가에 놓인, 오래전 주인을 잃은 피아노... 안스네스는 오래전 연주를 멈춘 피아노를 열어 다시금 북구의 낭만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안스네스가 보여주는 선배 작곡가에 대한 애정은 한없이 특별하다. 작곡가의 집을 찾은 여행객들은 후배 음악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에서 작곡가의 생전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 더욱 특별한 이야기도 있다. 안스네스는 인적이 드문 외진 산골마을을 찾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다. 자동차가 들어서지 못하는 산골마을에서 연주를 하고 싶었던 피아니스트는 헬기를 타고 피아노와 함께 산골마을을 찾았다. 그리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북구의 자연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리그의 음악을 연주하려는 그의 노력은 모든 현실을 뛰어넘고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와 피아니스트 안스네스... 그들도 타

고난 예술가들이지만, 어쩌면 이곳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자체로 낭만적인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겨울이면 사각사각 눈이 내리는 새하얀 마을. 빛나는 눈꽃송이가 그 자체로 별이 되는 신비한 땅. 더 없이 아름답고, 성스럽고, 청정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있는... 그래서 북구의 자연은 신비로우면서도 쓸쓸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베이그의 노래'... 이 노래도 노르웨이의 신화에서부터 시작됐다.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웨이 사람들... 이들에게는 '페르'가 겪는 모험담이 어렸을 때부터 친근한 이야기로 전해진다. 모험을 좋아하는 페르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린 그는 결혼하기로 한 아름다운 신부 '잉그리드'마저 놓치고 만다. 가까스로 잉그리드를 되찾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이내 실증을 느낀 페르는 산으로 도망쳐 마왕의 딸과 지내다가 괴물의 공격을 받는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페르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거대한 재력으로 활약하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의 금광에서는 큰 부자가 된다. 하지만 바닷길로 금은보화를 나르다가 폭풍우를 만난 페르는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져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지친 페르를 기다리고 있는 건 '솔베이그'라는 여인이었다. 오랜 모험 끝에 돌아온 고향의 오두막집... 그곳에는 페르를 기다리던 여인 솔베이그가 있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오랜 여행에 지친 페르를 위해 솔베이그는 노래한다. 험난한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한 위로의 노래... 그것이 바로 어딘지 모르게 슬픈 '솔베이그의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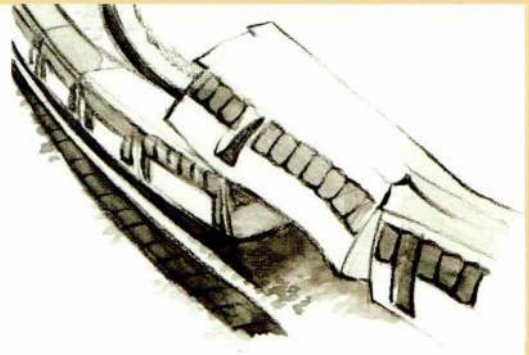
페르의 이야기는 바이킹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신화답게 역동적인 모험담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이 모험담에는 북구의 신화에 담겨진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곁을 흐르는 쓸쓸함이 함께 녹아 있다. 맑고 푸르른 북구의 대자연, 그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 안에는 가슴 한켠에서 느껴지는 고독함도 함께 전해진다.

요즘 일본인들이 하루하루 날짜를 세며 기다리는 영화가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상 깊게 읽었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 일본에서는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출판된 이 소설이 영화로 개봉된다고 해서 화제다.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한다. 어떤 사람은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이 책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제목과 큰 관계가 없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숲에서 느껴지는 그 신비로우면서도 쓸쓸한 느낌이 상실의 시대와 닮은 것 같다.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아름다움,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고독감... 그것이 바로 상실의 시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닮았다. 올 겨울에는 그 신비로운 고독감을 영화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AF**

따뜻한 말 한마디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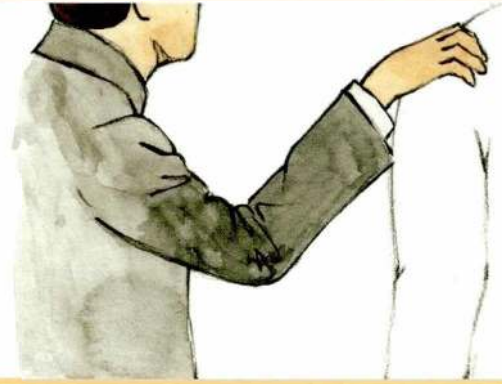


미 동부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크게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열차가 서로 정면충돌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났던 이 사고로 인해 한 열차의 기관사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열차의 기관사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살아남은 기관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남은 기관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사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던 기관사는 횡설수설하거나 엉뚱한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는 등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조사를 감행했고 마지막으로 철도회사 사장이 직접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기관사는 철도 회사의 사장실에 안내되었습니다. 방안에 들어간 그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해 하는 기관사 앞으로 다가와서는 그의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던 게 틀림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당신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이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어느 사람이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슬픔을 곧 나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장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기관사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같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장의 따뜻한 위로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에 사로잡혀 있던 그 기관사의 마음에 깨끗이 치유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지닌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나 개선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알 것 같다

그랬다. 역시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오래된 진리(?)를 다시 느끼게 해 준 일대 사건은 20년이나 된 단독주택에 살았던 내 집,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방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한 쌍의 죽음을 목격하면서였다.

어느 이른 아침, 어머니의 경악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건너 편 내 방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튀기듯 일어나 안방으로 갔을 때, 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던 광경은 계속 해서 떨고 있던 어머니와 방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납작하게 붙어있는 두 마리의 바퀴벌레였다. 그 애들은 얼핏 보아 한 마리의 지네처럼 보였을 정도로 완전히 밀착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비명에도, 곧바로 이어지던 슬리퍼의 채찍에도 그야말로 요지부동인 채로 한 몸이었다.

아! 그 애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내려치는,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인간으로 말하면 마치 전쟁같은 상황이었을 텐데도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사랑은 역경과 핍박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평소에 진부하게만 느꼈던 사람들의 말도 떠올랐다. 사랑의 무게는 이제껏 살아온 삶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워 보였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보니 목숨 또한 사랑만큼 질겼다. 폭격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시간이 멈추었다. 그 애들은 오랜 생을 끝냈다. 먼지 같은 세상에 먼지로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과 하직하면서도 그 애들은 고스란히 한 몸이었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끝에 최후를 맞이했던 폼페이 연인들처럼 마지막을 한 몸으로 살다 산채로 죽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몸에 조금의 통증이라도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아니 반사적으로라도 몸이 흔들려지게 마련인데도 그 애들은 고통을 온전히 견디고 있었던 것.

그랬을 것이었다. 그 벌레들은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죽음이 엄숙할 수도 있을 거라는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이쯤되면 사랑은 분명 죽음보다 강한 것이 된다.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시간을 멎게 했다. 사랑의 순간은 바로 영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쭙잡은 가슴 속 빛바랜 수첩 한 장을 열어본다.

스무살 때 찾아왔던 내 첫사랑이 또박또박 들어 있다. 그와 처음 만났던 날짜, 함께 보낸 3년 여의 숫자, 이별 이후 지내온 날들까지도 달력에 지우기 표시라도 한 듯 적혀 있다. 다른 학교엘 다니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이나 만나고 그래도 아쉽고 헤어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첫사랑과 헤어지며 나는 참 비겁했었다.

몸이 유난히 약했던 그가 자신의 체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매일 매일을 악전고투 하듯 공부를 하다보니 3년 동안 늑막염으로 입원을 세 번이나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원을 하던 날 그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병원의 이불깃보다 더 하얗게 질려보이던 그를 두고 나오며 나는 결코 사랑을 믿지 않았다. 내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없었으니 어쩌면 이별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 그를 지켜 줄 자신이 내겐 없었다.

사랑이 지나가고 나니 잊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어차피 삶이나 죽음이나 정해져 있는 뻔한 것인데 모든 걸 던져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말은 적어도 내겐 억지였다. 사랑이란 책으로나 영화 속에서만 봐 줄 일이었다. 다가오는 시간들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희망도 그렇다고 별반 절망도 가져보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랑에 대한 기다림마저 잊고 살았다.

한껏 하찮은 미물일 뿐인, 더러움과 온갖 병원균의 온상이라는 바퀴벌레 한 쌍이 보여 준 광경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않았다. 단순히 왕성한 번식력, 자연의 법칙,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껏 사랑은 없다고 세상을 원망하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다른 한 편으로 두 연인(?)의 죽음에 한없이 가슴이 아파오기도 했다.

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사랑은 분명 존재했던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사랑을 알 것 같다. **AF**

9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과학]**이다. 공군 출신인 이미도 외화번역가가 쓴 01 코너를 읽으며 영화속에서도 공군의 과학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기 린스 작업' 사진이 가장 흥미로웠다. 자동차 세차와 비교했을 때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롭지만 안전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이었다. 신문에서 가끔 탐견 취재 기사를 접할 때마다, 역대 탐견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탐견의 계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과천시, 이현규**

02 월간 「공군」은 **[여유]**이다. 창공에서 날아가는 전투기와 여백인 하늘이 주 무대가 어우러져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마치 전통 동양화의 여백과 실체가 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여유를 공군은 지니고 있다. <Leadership+>기사가 좋았다. 조직이나 단체의 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경영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목표와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리더십이라고 본다. 내 삶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싶다. **서울 구로구, 이은주**

월간 「공군」은 **[신문]**이다. 우리가 잘 몰랐던 공군에 대해 알게 하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획특집>에서 다룬 '공군 UFG 현장속으로'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에서는 바쁘게 공군 대원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멈출리는 모습을 보고 든든함을 느낀다. **광주 서구, 강경호**

04 월간 「공군」은 **[공군]**이다. 공익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그림>에서 '위대한 조직은 팀워크부터 다르다' 기사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림과 조화를 잘 이뤄 전달하려는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조직의 화합과 단결이 개개인의 능력과 기지의 총합이므로 뛰어난 개인기와 조직의 팀워크가 서로 접점을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양천구, 이낙현**

월간 「공군」은 **[파워]**이다. 우리나라 창공을 지키는 강한 힘을 05 가졌으므로, 모든 기사가 다 여운에 남았으나 그 중에서도 6·25전쟁 공군영웅기의 '백구부대, 최종봉 대위의 일대기'가 기억에 남는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애국심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위대한 우리 공군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 **전남 순천시, 전정호**

06 월간 「공군」은 **[자유]**이다. 스피드와 하늘이라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공군은 '자유'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군인인 듯하다. <Behind the Canvas>에 '자유로운 몽상가 마르크 사갈'에서 화가의 생애와 그림을 함께 살펴보니 이해력이 높아졌다. **전북 전주시, 양승혜**



2010 November

no.389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5.1~2011.4.30

제501군사우체국
제1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0 November

no.389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1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1월 30일까지

1.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확립 및 연합 전투능력 신장을 위해 펼쳐진 한·미 공군간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의 영문 명칭은?
2.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고, 우방국 생도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는?
3. Davis-Monthan 공군기지의 공군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현존 최대 인원 구조/전투 수색 구조 훈련은 무엇인가?

9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Ulchi Freedom Guardian 2. 백구부대 3. 마르크 사갈

퀴즈 당첨자 경기 과천시 이현규 ● 서울 양천구 이낙현 ● 전남 순천시 전정호
전북 전주시 양승혜 ● 광주 서 구 강경호 ● 서울 구로구 이은주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간접·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하늘을 향한 꿈, 우주를 향한 도전!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